

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채원영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 목차

I. 테마진단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

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 / 17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1

2. 국내경제 / 50

3. 금융경제 / 61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67

2. 생명보험 / 70

3. 손해보험 / 88

부록 I. 통계표 / 115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22

I. 테마진단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¹⁾

기승도 수석연구원

1. 검토 배경

■ 자동차보험제도는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음.

- 자동차보험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제도 변화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1963년), 자동차보험취급사 다원화(1983년), 자동차보험요율체계 개편(1989년), 자동차보험상품 단일화(1993년),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 또는 진입규제 완화(2000년 이후)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 이유는 자동차보험제도가 국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의지와 노력, 자동차보험산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예를 들면 손해율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 편익에 부응한 자동차보험제도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 및 시대상황 등임.

■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부터 현재까지는 자동차보험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큰 틀의 자동차보험제도 변경이 없었음.

- 부가보험료 및 순보험료 자유화가 실시된 2001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요율변경 및 상품개발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기였음.

1) 본 연구자료는 자동차보험변천사(보험개발원 1997)의 일부 내용과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자유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의 통제형 자동차보험제도가 자유화된 보험제도(특히 요율측면에서)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음.
- 그런데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자유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현재에도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요율변경(특히 요율인상)에 사회 여론을 감안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보험을 제도적 측면만 보면 ‘요율 및 상품이 자유화된 자동차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측면을 보면 제도적 측면의 정의에 부합되게 자동차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지는 의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어떠한 부분이 현재의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2.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과 의미

■ 본 절에서는 자동차보험요율 및 상품에 큰 영향을 준 제도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변경된 제도의 효과 및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1963년)

-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 그리고 자동차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했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므로, 입증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입증도 쉽지 않은 문제, 즉 피해자 보호 문제가 심각하였음.

■ 당시 사회문제가 되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체위원회는 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314호)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동 법률은 동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사고원인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거증책임의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산업 입장에서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운행자)가 책임보험(현재 대인배상 I에 해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 증가가 자동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짐.
- 자동차를 소유한 자(운행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지우고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동 법률 규정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강제보험 또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라고 인식하는 시발점이 되었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1982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한도만으로 충분하게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보상한도²⁾를 높여야 하는데, 보상한도 인상은 보험료 증가(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당시 정책당국은 보상한도 인상을 결정하지 못함.³⁾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당시 사망/부상의 최고 가입한도는 10만 원/7만 원이었음.

3)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보상한도 인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정책당국은 피해자 보호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 인상을 결정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당시 자동차보험제도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사회전체로 확산됨.

■ 그런데 당시에 자동차보험을 전담하고 있던 한국자동차보험(주)이 1976년에 대인사고에 대한 무한보상을 하는 상품(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품)인 「차주배상책임보험(대인)」을 임의보험 형태로 개발하여 인가받음.

- 차주배상책임보험(현재의 대인배상Ⅱ에 해당)은 이후, 대물배상 책임보험 및 차량보험과 통합되어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종합보험에 편입됨.

■ 정책당국은 “현행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므로 자동차보험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당시 여론”에 부응하여 책임보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을 실시함.

- 정책당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동 법률에서 정한 중대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운전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률 제3490호, 1982년 1월 1일)을 제정·시행함.
-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의 가입률 제고⁴⁾를 통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법률로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법률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시행으로 2013년 1월 말 현재 대인배상Ⅱ(당시 차주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의 가입률이 90.3%에 이르게 된 원동력이 됨.

다. 자동차보험취급사 다원화(1983년)

■ 1983년 자동차보험취급사 다원화 이전에는 한국자동차보험(주)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음.

- 공기업인 한국자동차보험(주)이 독점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보험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국자동차보험(주)이 독점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지급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서비스가 독선적”이라는 지적과 같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83년 6월 1일 민영 손해보험회사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다원화 정책을 실시함.

- 정부의 다원화 정책으로 당시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자동차보험(주) 외 10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개의 외국보험회사(AHA, AFIA)로 확대됨.
- 1983년 다원화 조치로 한국자동차보험(주) 이외의 다원화 대상 보험회사들은 책임보험 이외의 담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4년 2월 1일부터는 책임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자동차보험취급사 다원화는 “종합보험 부보율 증가”, “손해보험시장 경쟁 가속화”,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다원화 시기부터 2000년 요율자유화 이전까지는 공통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요율로 한국자동차보험(주)⁵⁾과 기타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영업망으로 판매경쟁만 하던 시기였으며 요율 및 상품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요율 및 상품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요율 및 상품경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경쟁구도는 1983년 다원화 조치 때 이미 잉태되었다고 생각됨.

5) 현재의 동부화재임.

라. 자동차보험상품 및 요율체계 개편(1989년)

■ 자동차보험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업계의 적자폭 확대, 자동차보험요율체계와 사고원인의 불일치(즉, 운전자요인(인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요율체계), 상품체계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이 이루어짐.

- 상품 측면을 보면,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품체계가 현재와 유사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경됨.

〈표 1〉 자동차보험상품체계 변경 내용

기존	변경
•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승용차 및 개인면허사업용 이외의 모든 자동차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자가운전자용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운전자용승용차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면허 화물자동차	•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모든 영업용 자동차

자료: 보험개발원(1997), 「자동차보험변천사」, p. 41.

- 요율측면에서는 할인할증제도 개선, 운전자경력요율제도 도입 및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 도입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요율체계도 현재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와 거의 유사함.
 - 할인할증제도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할인할증 평가방법으로 건수제에서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을 결합한 사고점수제로 변경함.
 - 가입경력요율제도는 최초 가입자 25% 할증, 2년째 가입자 15% 할증, 3년째 가입자 10% 할증 등 경력별로 할증률을 달리하는 것임.
 - 성별 및 연령별 요율제도는 운전자 연령, 성 및 결혼여부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임.

■ 1989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는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의 근간이 되었음.

- 따라서 현 자동차보험요율 및 상품체계의 시작을 1989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편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약 24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임.

■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가 1989년 당시 자동차보험 여건을 반영한 제도라고 볼 때,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보험 여건에 맞은 상품 및 요율체계인지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마. 자동차보험상품 일원화(1992년) 및 상품 단일화(1994년)

■ 1994년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험료 이중 부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계약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비용 발생 및 보상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1992년 약관서식 개선, 보험기간 단일화, 책임·종합보험 가입기간 일원화 및 가입보험회사 일원화를 실시하였음(재무부 특보 22340-94).

- 행정쇄신위원회는 당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자동차보험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재구성하도록 요구함.
- 행정쇄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1994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이 폐지되고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이라는 현재의 틀을 갖춘 자동차보험 상품 단일화가 실시됨.

■ 자동차보험 상품 일원화 및 상품 단일화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가 완성되었으며, 그 운영기간은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 됨.

-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는 1989년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체계 개편, 1992년 자동차보험 상품 일원화, 1994년 자동차보험 상품 단일화를 거치면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상품 및 요율체계는 1989년부터 24년, 자동차보험 상품 단일화(1994년) 부터는 19년이 된 것으로, 현재는 당시 자동차보험제도가 만들어지던 시대 상황과 많이 다르므로⁶⁾ 향후에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상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1990년대 들어 정부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요율자유화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 요율자유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96년에 할인할증제도 및 특별할증요율자유화, 1997년 가입자특성 요율자유화, 1998년 기본보험료 자유화라는 최종 자유화 일정이 1993년 12월에 발표됨.

- 범위요율에서 자유요율로 일정한 기간(2년)마다 순차적으로 자유화되는 계획이었음.

〈표 2〉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 초기 일정

단계	시행시기		변경
	범위요율	자유요율	
1단계	1994. 4월	1996. 4월	할인할증율, 특별할증율
2단계	1995. 4월	1997. 4월	가입자특성요율
3단계	1996. 4월	1998. 4월	기본보험료

자료 : 보험개발원(1997), 「자동차보험변천사」, p. 48.

■ 기존에 발표되었던 자유화 일정은 자유화 추진 과정에 발생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1994년 7월에 다시 변경되었으며, 2001년 순보험료 자유화를 끝으로 요율자유화 일정이 마무리됨.

6) 상품 및 요율제도 측면에서 현재는 자유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관리하던 시대였음. 즉, 당시에는 보험회사들이 단일한 상품 및 요율로 영업경쟁(시장확보 경쟁)만 하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다른 요율 수준이 다른 상품(상품내용은 동일함)으로 가격경쟁 및 영업경쟁을 하고 있음.

- 1996년 8월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확대, 1998년 8월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2단계 확대를 거쳐 2000년 8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2001년 8월 순보험료 자유화로 요율자유화가 완성되었음.⁷⁾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이후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완화와 맞물려 자동차보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단초가 되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경쟁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진입규제 완화’는 2000년 1월 보험사업 최저자본금 기준 완화, 2003년 5월 보험종목별 허가제도와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남.⁸⁾

- 진입규제 완화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요율측면의 경쟁(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 특히, 진입규제 완화로 기존 자동차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평균 15% 저렴한 직판전업사가 출현하였으며, 이는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표 3〉 보험업 진입규제 완화

단계	기존	변경
2000.1.21 법률 제6175호 (법 제6조제1항)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하여야만 보험사업 영위가능	보험사업 중 일부만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을 차등
2003.5.29 법률 제6891호 (법 제9조제2항)	대면, 비대면회사 동일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3분의 2로 완화

자료: 이성남 ·김건식(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pp. 33~50.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및 진입규제 완화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 등도 자동차보험 상품을 자유화 대상 상품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7) 이순재(2009),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p. 23.

8) 동 규제 완화는 보험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자동차보험이 이 법률의 영향을 크게 받음.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전업사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 전업사들의 영업방식이 통신판매 전문이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과 관련한 여러 행정적 규제들은 자유화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때문에 일부 규정들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들 간 상품 및 요율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가격자유화(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 순보험료 자유화) 및 진입규제 완화(2000년 및 2003년)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2000년대는 자동차보험 가격경쟁이 치열했던 시기가 됨.

- 특히 2003년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보다 15% 저렴한 직판상품을 들고 시장에 진출한 교보자 동차보험(주)을 시작으로 여러 직판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였음.
- 이러한 직판전업사의 시장 진입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 자동차보험산업에 내포된 여러 문제점을 잉태하는 원인도 되었다고 판단됨.

3. 現 자동차보험제도 및 문제점⁹⁾

가. 現 자동차보험제도

■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 중 상품 종류는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포함),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 업무용 포함),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 보험종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상해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상한도 1,000만 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입시 운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담보임.

9) “기승도(2013. 6), 「경쟁구조개편을 통한 자동차보험산업 효율성제고 방안」, 국회 공청회자료, pp. 27~29” 내용을 일부 인용함.

- 현 상품 종류 및 담보 종류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함.

■ 요율제도는 1989년에 만들어진 것처럼 할인할증제도, 가입경력요율제도, 기명피보험자 연령제도 등이 있으며, 여기에 2000년 중반에 도입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등이 추가됨.

- 요율제도는 대인배상 I 과 기타 담보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는 없으며 회사별 차이도 없음(즉,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요율제도 변경 및 상품 개발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기존 요율수준 변경 및 기본보험료(보험료 및 요율¹⁰⁾) 변경은 자율상품기준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규정에 따르면 요율수준 변경 등은 손해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따라 요율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현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

■ 현 자동차보험제도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제도들이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인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흐름에 따라 시행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정책으로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라는 손해보험회사의 인식은 강화됨.
- 이처럼 자동차보험 시장참여자인 소비자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변할 때마다 양자 간의 갈등양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10) 자동차보험에서는 기본보험료와 기본요율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음. 자기차량손해 보험 담보에서는 비율 형태로 기타 담보에서는 금액 형태로 보험료가 산출·적용되기 때문임.

■ 소비자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자동차보험의 속성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만성적 영업수지 악화라는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손해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 놓여 있음.
- 자동차보험료 문제는 자동차보험산업을 포함한 손해보험산업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1)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 자동차보험제도의 애매한 운영 행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둘러싼 반복적인 사회적 갈등 원인이 되고 있음.

- 2006년 6월 대통령 지시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대책”을 추진하여 제도개선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당시 고공 행진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정상화를 시도함.
- 2010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비례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운행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통한 손해율 정상화가 이루어짐.

■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산업은 손해율 악화 → 정책당국의 개입을 통한 손해율 정상화 → 보험료 인하 압력 → 손해율 악화 → 다시 정책당국의 개입을 통한 손해율 정상화라는 현상이 일정주기로 반복되고 있음.

2) 타 보험종목과 불균형, 그리고 직판회사 위기

■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보험, 일반보험에서 이익을 실현하거나 특히 장기보험의 투자수익을 통해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우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임.

- 특정종목의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는 것은 보험종목의 균형발전 측면과 손해보험산업 전체적인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큼.

■ 타 보험종목 판매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일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직판 전업사 및 중소형사들은 장기적으로 경영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일부회사, 즉 직판전업사는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보험종목 판매 인가를 받아 자동차보험시장의 위험을 극복하려고 노력함.
- 직판전업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시장에서 기존 손해보험회사와 비교하여 낮은 인지도 때문에 장기보험 등의 상품판매로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동차보험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직판전업사 및 중소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위험은 자동차보험 산업 내에 항상 존재하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불균형가격으로 인한 초과수요에 따른 부정적 효과

■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저가격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결과 매년 자동차보험산업 전체 손해율은 예정 손해율을 초과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FY2009를 제외하고 매년 약 75%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실적손해율 약 75%는 예정손해율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이는 자동차보험 가격이 실제 가격(또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¹¹⁾

11)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사업비 부분과 보험금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합산되어 결정됨. 따라서 보험료가 균형가격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합산비율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합산비율 산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즉, 여러 보험종목을 판매하는 종합손해보험회사들인 보험회사의 사업비는 여러 보험종목의 사업비가 합산되어, 종목별로 정확한 실제 사업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 사업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값이 아닌 특정 기준에 따른 추정값임. 즉, 종목별 실적사업비 값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진정한 값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자동차보험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전체의 70%를 초과하고, 실적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실적손해율)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 따라서 손해율 기준으로 보험료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생각되어 손해율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평가하였음.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손해율은 손해사정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옛날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정손해율을 70% 초반으로 보고 실적손해율과 비교하여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균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실적손해율이 70% 초반 값보다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초과수요가 발생)을 의미하며, 그 반대의 상황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초과공급이 발생)을 의미함.

〈표 4〉 연도별, 담보별, 증권별 손해율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책임 담보	대인 I	67.1%	71.8%	74.5%	74.0%	78.8%
	대물	76.2%	81.7%	86.7%	82.5%	82.3%
임의 담보	대인 II	73.7%	65.5%	75.7%	77.3%	76.6%
	자손	60.6%	71.5%	70.4%	70.6%	74.6%
	차량	69.0%	82.1%	88.0%	68.2%	66.7%
	무보험	36.7%	35.7%	42.6%	52.7%	53.9%
증권별		69.0%	75.9%	81.1%	74.9%	76.2%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공급되는 자동차보험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예정손해율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초과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실제 위험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운전관련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 있음.
- 공급자인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서비스 질을 낮추어 공급하는 등의 공급물량 이외 측면에서도 사회적 후생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4) 운전자의 모럴해저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대인배상Ⅱ의 가입률이 증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운전자에게 사고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에 둔감하게 만드는 운전측면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양면성을 가진 법률 제도임.

■ 2013년 현재 대인배상Ⅱ의 가입률이 90%를 초과하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당시 목적이 실현된 상태이므로 양면성을 가진 동 법률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고감소를 통한 사회적 후생 극대화 측면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 및 상품 운영 체계의 개편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의 자동차보험제도 변화과정을 볼 때 향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향은 1) 사회적 인식에 부합한 운영체계 확보, 2)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자유화), 3)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 인식에 부합한 상품 및 요율운영체계 확보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는 현행 상품 및 요율을 규제담보와 임의담보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법은 자동차보험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사회보험적 성격(의무보험)과 자유화의 성격(민영보험)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 현재 자동차보험 담보를 규제담보(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 원)와 임의담보(규제담보 이외 담보)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규제담보의 상품 및 요율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의담보에서는 상품 개발 및 요율자유화의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운전자의 모럴해저드(주의 운전을 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전체 자동차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존속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은 동법률을 폐지하거나,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위반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기승도(2013. 6), 「경쟁구조개편을 통한 자동차보험산업 효율성제고 방안」, 국회 공청회자료.
보험개발원(1997), 「자동차보험변천사」.

_____, 월말보고서, 각 월호.

이성남 · 김건식(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이순재,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 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석영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최근 암보험 상품은 보장 확대, 보장기간 연장, 그리고 가입연령 확대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음.

- 과거 손해를 급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 혹은 가입금액을 축소 시킴으로 암보험 상품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 그동안의 암보험 상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암보험 상품과 달리 재발암 보장과 같은 보장확대, 종신까지 보장기간 연장, 혹은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는 형태로 암보험 상품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음.

■ 본고는 암 발생률과 새로운 암보험 상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와 감독당국과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암 발생률¹²⁾

■ 암 발생률의 경우 2010년 조발생률¹³⁾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4명, 여자는 397.7명이며,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¹⁴⁾로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남자 333.6명, 여자 297.0명임.

-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상위 5대 암이 전체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였음.

12)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0 암등록 통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13) 조발생률은 해당 관찰기간동안 특정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발생하는 환자 수로 나타냄.

14) 주민등록연앙인구란 해당연도 연초 주민등록인구(전 연말 주민등록인구)와 해당연도 연말 주민등록인구를 합해서 2로 나눈 평균 값.

〈표 1〉 성별 주요 암종 암 발생 현황: 남자, 2010년

(단위: 명, %, 명/10만 명)

순위	암종	발생자 수	백분율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모든 암	103,014	100.0	412.4	333.6
1	위	20,179	19.6	80.8	64.2
2	대장	15,612	15.2	62.5	49.8
3	폐	14,650	14.2	58.7	47.2
4	간	11,818	11.5	47.3	37.1
5	전립선	7,848	7.6	31.4	25.3
6	갑상선	6,231	6.0	24.9	21.6
7	방광	2,752	2.7	11.0	8.9
8	담낭 및 기타담도	2,532	2.5	10.1	8.2
9	신장	2,520	2.4	10.1	8.2
10	췌장	2,505	2.4	10.0	8.0

○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상위 5대 암이 전체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였음.

〈표 2〉 성별 주요 암종 암 발생 현황: 여자, 2010년

(단위: 명, %, 명/10만 명)

순위	암종	발생자 수	백분율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모든 암	99,039	100.0	397.7	297.0
1	갑상선	29,790	30.1	119.6	102.8
2	유방	14,208	14.3	57.1	45.4
3	대장	10,170	10.3	40.8	26.4
4	위	9,913	10.0	39.8	26.7
5	폐	6,061	6.1	24.3	14.8
6	간	4,103	4.1	16.5	10.4
7	자궁 경부	3,857	3.9	15.5	12.3
8	담낭 및 기타담도	2,345	2.4	9.4	5.4
9	췌장	2,132	2.2	8.6	5.0
10	난소	1,981	2.0	8.0	6.2

-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4%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7.6%, 여자는 33.3%였음.

〈표 3〉 성별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의 암 발생 확률

(단위: 세, %)

연도	평균수명			평균수명까지 누적암 발생위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80.0	76.0	83.0	32.6	34.4	28.9
2008	80.0	77.0	83.0	34.0	37.2	30.5
2009	81.0	77.0	84.0	36.2	37.9	32.7
2010	81.0	77.0	84.0	36.4	37.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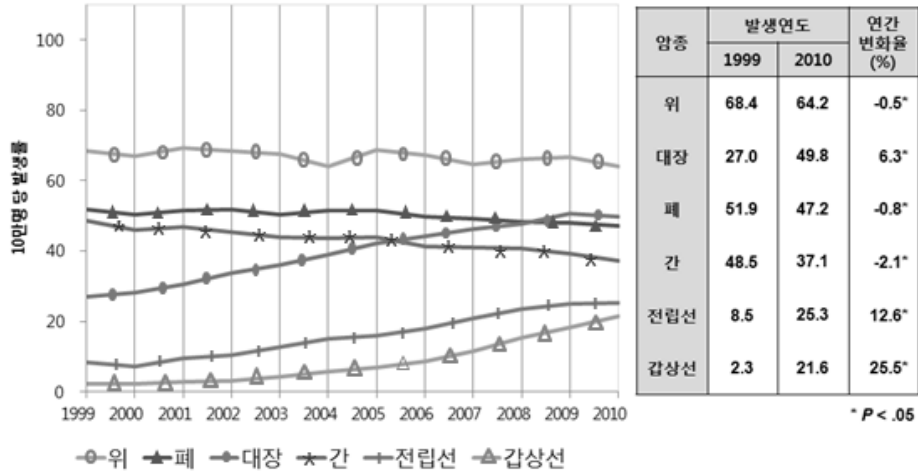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평균 수명은 1년 정도 늘었지만 누적암 발생률은 남자가 3.2%, 여자는 4.4% 증가하였음.
- 이는 암이 노년층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수명 연장으로 인해 암 발생 확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암 발생자는 202,053명으로, 2009년 194,359명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암종별 발생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남녀 전체의 갑상선암, 대장암, 남자의 갑상선암, 전립선암, 여자의 갑상선암, 유방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남자의 위암, 폐암, 간암, 여자의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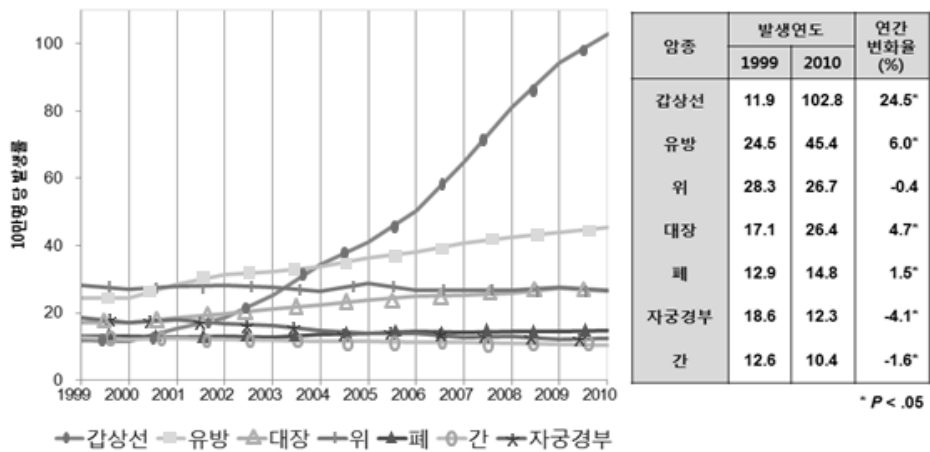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암종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남자

(단위: 명)



〈그림 2〉 주요 암종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여자

(단위: 명)



-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표준화 연간변화율은 남자 1.6%, 여자 5.6%이나, 갑상선 암을 제외할 경우 남자 1.0%, 여자 2.0%로 대폭 줄어듦.

■ 2006~2010년 사이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¹⁵⁾은 64.1%로 1993~1995년 41.2% 대비 22.9%p 상승하고, 1996~2000년 44.0% 대비 20.1%p, 2001~2005년 53.7% 대비 10.4%p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암 발생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주요 암의 5년 상대생존율 추이: 남녀 전체

(단위: %)

발생 순위	암종	발생년도			
		'93~'95	'96~'00	'01~'05	'06~'10
	모든 암	41.2	44.0	53.7	64.1
1	갑상선	94.2	94.9	98.3	99.8
2	위	42.8	46.6	57.7	67.0
3	대장	54.8	58	66.6	72.6
4	폐	11.3	12.7	16.2	19.7
5	간	10.7	13.2	20.1	26.7
6	유방	77.9	83.2	88.5	91.0
7	전립선	55.9	67.2	80.1	90.2
8	담낭 및 기타 담도	17.3	19.7	22.8	26.7
9	췌장	9.4	7.6	8.0	8.0
10	비호지킨 림프종	46.6	50.8	59.9	64.9

○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생존율을 보이고 있음.

- 암 발생률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폐암, 간암은 여전히 낮은 상대생존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암 발생자들의 42.6%(남자 41.4%, 여자 43.8%)는 국한¹⁶⁾으로 진단되었으며, 30.9%(남자 28.4%, 여자 33.5%)는 국소로 판정되어, 70% 이상의 암 발생자들이 멀리 떨어진 부위로 전이되기 전에 진단을 받았음.

15) 관심 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 군을 가지는 일반 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 준 생존율을 의미함.

16) 미국 국립암연구소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SEER) program에 의해 개발된 병기분류로 암이 그 원발 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있는지를 범주화한 기본적인 분류 방법임.

- 2009년 암 발생자들의 41.7%는 국한으로 진단되고, 29.2%는 국소로 진단되어, 1년 동안 각각 0.9%, 1.7%가 증가하였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검진으로 인해 국한 및 국소 진단자 비율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립선암의 경우, 2009년 국한 진단자 비율이 55.5%였으나, 2010년에는 58.7%로 3.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기검진의 영향으로 추측됨.

3. 암보험 상품의 진화 방향

가. 암보험 상품의 변천¹⁷⁾

- 국내 암보험 상품은 1988년 7월 21세기 암보험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사망담보 위주로 상품급부가 설계되어 판매됨.
 - 최초 상품은 암 사망, 암 수술, 암 입원, 암 통원, 그리고 암 요양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달리 암 진단 급부가 없는 대신 암 사망 급부가 주요 담보였음.
 - 당시, 암 진단 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상품 구조임.
- 1990년대에 소개된 암보험부터 암 진단 급부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암보험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함.
 - 암보험이 이익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이 아닌,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려는 회사들의 노력으로 진단 급부가 추가된 것임.

요약병기	설명
국한	악성암이 기원한 조직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
국소	악성암이 기원한 조직을 넘어 주변으로 확장된 상태
원격	악성암이 원발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된 상태
모름	모름(사망진단서에서만 암으로 확인 가능한 환자 포함)

17) 서재영 외(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2000년대부터는 암 진단 시 바로 사망하지 않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암 진단과 암 사망을 모두 보장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암 사망 담보가 선택특약으로 변경됨.
- 반면, 암 진단이 주요 급부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보장 금액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특정암, 고액암 담보가 도입됨.

■ 리스크 관리보다는 보험시장의 수요에 맞춘 암보험 판매와 함께, 암 발생률 상승과 맞물려, 보험회사들은 2000년 이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상승으로 인해 암보험 상품판매에 소극적이 되었음.

- 보험회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암들을 소액화 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암보험 상품 판매 중지 혹은 가입 금액을 축소함.
- CI(Critical Illness) 보험에서 담보의 하나로 암을 보장하거나, 특약으로 암을 보장하는 형태로 시장이 축소되었음.

〈표 5〉 암보험 상품의 변천

	최초 암보험	2회 생명표 1992.8~1996.12	3회 생명표 1997.1~2002.12	4회 생명표 2003.1~2005.12	5회 생명표 2006.1~
대표 급부금	암사망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암요양	암사망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암사망 특정암 진단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고액암 진단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암사망 급부 특약화	고액암 암진단 암입원 암통원 암사망 급부 특약
위험률 관련	위험률은 모두 일본통계 적용		암발생률 국내통계 전환	암발생률 경험통계 전환	
특징	진단급부가 없었음	암진단 급부 도입 (1991.1월)	상피내암 급부 추가 기타피부암 소액화 방사선치료 급부	암수술횟수 도입 경제성종양 추가	암보험 판매중지 감상샘암 소액화 갱신형 도입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암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보험회사들은 암보험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되는, 즉,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

재하는 것에 반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 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예정위험률 산출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세리스크가 존재하여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
- 현재도 예정위험률 산출 시 미래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나. 새로운 암보험 상품의 등장

■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그동안의 경험 통계와 국민암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함.

- 암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고연령에서의 암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최근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해 암 진단 후에도 오랜 기간 생존이 가능해짐.
-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들이 새롭게 개발됨.

■ 새로운 암보험 상품은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입 연령을 확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보장 기간 확대: 기존의 암보험은 최대 80세까지 보장하였으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에 도달함으로써, 보장기간이 100세 혹은 종신으로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음.
- 가입 연령 확대: 기존의 암보험은 대부분 가입 연령이 60세까지였으나, 최근에는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된 암보험이 출시되었음.
- 보장 확대: 기존의 암보험은 최초 암 진단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발 암 진단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여러 번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음.
- 암 단계별로 보험금 차등 지급: 기존의 암보험은 암의 진행 단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암의 진행 단계별로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 준비 중임.

■ 새롭게 출시된 암보험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한 것임.

- 보험회사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장 기간을 확대함.
 - 갑상선암과 같은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암에 대해 보험금을 소액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체 암발생 증가율을 연 2% 수준으로 둔화시킬 수 있어 보장기간 확대가 가능해짐.
- 보험시장이 포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고연령 시장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고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입 연령을 확대함.
 - 고연령층의 보험 가입 시 언더라이팅 이슈와 비싼 보험료가 문제가 되었으나 간편 심사보험¹⁸⁾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가입 금액을 낮춤으로써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음.
- 기존 CI보험이 암을 포함하여 모든 중대한 질병 및 수술을 1회 보장하였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I를 2회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진화하며 암을 2회 보장해주는 CI 상품이 등장함.
 - 이후, 암 단독상품으로 암을 여러 번 보장하는 상품으로까지 진화를 함.
- 보험회사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암이 초기에 쉽게 진단되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적는데 반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말기에 진단되는 암은 많은 치료비가 요구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암 진행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함.

■ 이러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의 출시로, 소비자들은 필요 시 암보험 가입이 보다 수월해졌으며, 기존의 암보험에서 받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

- 소비자들은 사망뿐 아니라, 암 진단에 대해서도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기존 암보험의 보장 기간이 너무 짧거나,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75세 미만의 노인층도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과거와 달리, 최초 암 진단 후 오랜 기간 생존이 가능한 상태에서 암의 재발에 대해서도

18) 간편 심사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최소한의 의적고지를 받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간편 심사 암보험은 피보험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무에 대해서 묻지 않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6〉 기존 암보험 상품과 신상품 비교

	기존 암보험 상품 ¹⁹⁾	신상품	소비자 혜택
보장기간	80세	종신	보장기간 확대
가입연령	~ 60세	~ 75세	고연령에서도 가입가능
보장	최초 암 진단 보장	암 진단 시 보장	암 진단 후에도 계속 보장

다. 새로운 암보험 상품의 위험요인

-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보장기간 연장은 장기보장으로 인한 추세리스크가 발생함.

- 현재도 암 발생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시점에서 암 발생률 상승이 멈출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추세에 대한 안전 할증을 예정 위험률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장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추세 리스크가 크게 우려스러움.
 -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36.4%가 암에 걸리며, 누적암 발생 확률은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상승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암 누적발생확률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들은 현재 갑상선암, 유방암 등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부 암들을 소액화하여 추세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암사망을 함께 담보함으로써 암 발생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려고 함.
 - 일부 보험회사들은 10년 혹은 15년 갱신형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100세 혹은 종신토

19) 회사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록 암 진단을 보장하지만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추세 리스크를 제어하려고 함.

-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인 발생률 1위 암이 위암에서 전립선암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식생활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지금 관찰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암 발생 패턴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음.

-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같이 과거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쉽게 발견되는 암이 미래에 또 다시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상품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현재의 안전할증 수준에서는 갱신형으로 상품을 설계하지 않는 한 추세리스크는 항상 존재함.

- 갱신형으로 개발할 경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계약자들의 보험갱신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 둘째, 가입연령 확대로 새롭게 가입이 확대된 연령층(61~75세)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수준리스크가 존재함.

- 기존의 암보험 가입자의 경우 나이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확대된 연령층에 도달한 보유계약자 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현재 정확한 경험 발생률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입연령 확대는 간편 심사 상품을 통해서 가능하였으나²⁰⁾ 간편 심사 암보험 상품이 과거에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간편 심사가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못함.

- 한편으로는, 보장기간이 100세까지여서 추세리스크도 함께 존재함.

- 보험회사들은 암사망을 함께 보장하고, 갱신형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음.

- 그러나 사망 담보도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위험률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리스크가 존재함.

- 현재, 위험률에 부가되는 안전할증이 수준리스크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20) 61~75세 연령층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어 정상 상품의 가입이 어려움.

른 상품들에 비해서 수준리스크가 큰 상품은 수준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요구됨.

■ 셋째, 최초 암 발생 이후 재발하는 암에 대한 정확한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

- 의료기술 발달로, 최초 암 진단 이후 오랜 기간 생존함으로써 암에 대한 노출 기간이 점차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해 암이 재발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에는 암이 재발할 경우 대부분 곧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재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3차, 4차 암 진단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함.
- 한편, 조기에 암을 발견함으로써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어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동시에 있음.
- 그러므로 향후 암이 여러 번 재발할 확률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매우 큼.

■ 넷째, 암 단계별로 보험금 차등 지급의 경우도 암의 진행 단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암의 진행단계 구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²¹⁾가 형성될 때까지 보험금 차등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항상 존재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암 진행단계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인해 상품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됨.

4. 향후 과제

■ 위험률 산출단계에서 보험상품 담보에 내재되어 있는 추세리스크와 수준리스크를 안전할증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상품의 설계에서 수준리스크와 추세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보장금액을 조정하고, 갱신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21)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대한 질병들의 진행단계에 대한 구분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이 암 단계별 보험금 차등지급 상품(stage cancer product)이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현행 안전할증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보험회사들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안전할증 설정 시 수준리스크, 추세리스크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함.
 - 일본도 암 발생률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암보험 상품이 꾸준히 개발되어 판매될 수 있었음.

■ 감독당국은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집적하고 필요 시, 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하며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관련 통계 부족으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정확한 위험률 산출로 이어질 수 있음.
- 부적절한 상품 공급은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적절한 통계와 상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여야 함.

■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 자료와 시장 분석을 통한 경험 축적이 필요함.

- 새롭게 출시된 암보험 상품들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장기보장, 고연령 가입, 추가보장에 따른 추세리스크와 수준리스크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경험자료 축적을 통해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암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됨.

-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은 과거 암보험 상품들이 손해율 급증으로 인해 판매 중지 혹은 가입금액을 축소할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새롭게 도입된 보험료 산출 방식인 현금흐름 방식하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합리적인 현금흐름 가정을 사용한 보험료가 산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암보험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07.

_____,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08.

_____,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09.

_____,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10.

보험개발원(2005),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CEO Report.

서재영 외(2012), 「암보험의 상품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보험학회지, 91집.

중앙암등록본부, 2010 국가암등록 통계.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3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신흥국 경제의 부진으로 전기대비 소폭 회복하는데 그침.

■ 2013년 1/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2년 4/4분기보다 0.1%p 상승한 0.7%에 그침.

- 선진국 경제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시 등으로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0.0%에서 0.3%p 상승한 0.3%를 기록하였음.
- 신흥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1% 성장하였음.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3.9	3.1	0.8	1.0	0.7	0.8	0.6	0.7	0.6	0.7
선진국 ²⁾	1.7	1.2	0.3	0.6	0.3	0.4	0.1	0.3	0.0	0.3
신흥국 ²⁾	6.2	4.9	1.5	1.5	1.1	1.1	1.3	1.3	1.3	1.1
미국 ³⁾	1.8	2.2	2.5	1.3	4.1	2.0	1.3	3.1	0.4	1.8
유로 ⁴⁾	1.5	-0.6	0.2	0.1	-0.3	-0.1	-0.2	-0.1	-0.6	-0.3
일본 ⁵⁾	-0.6	1.9	-0.8	2.7	0.2	1.2	-0.2	-0.9	0.3	1.0
중국 ⁶⁾	9.3	7.8	2.4	2.3	1.8	1.6	1.9	2.1	2.0	1.6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3. 7).

3)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6).

4) Eurostat(2013. 6).

5) 일본 내각부(2013. 5).

6) 중국 국가통계국(2013. 4).

■ 2013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미국과 일본의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00.0을 나타냄.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100.5	99.9	100.8	100.2	100.0	100.1	99.9	99.7	99.8	100.0
선진국 ³⁾	100.4	100.0	100.6	100.1	99.9	100.1	100.0	99.9	100.0	100.3
미국	100.0	100.3	100.3	99.6	99.7	100.2	100.2	100.2	100.5	100.8
유로	100.9	99.5	101.3	100.6	100.0	99.8	99.6	99.3	99.4	99.8
일본	100.2	100.0	100.2	100.1	100.1	100.3	100.1	99.8	99.9	100.6
중국	101.2	100.0	101.4	101.1	100.6	100.3	100.1	99.9	99.8	99.7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1/4분기 세계 무역규모의 경우 중국과 일본, 미국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2012년 4/4분기 대비 0.3%p 높아진 1.7% 증가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무역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4.1% 증가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6.0	1.9	5.7	5.4	2.9	2.1	2.9	1.3	1.4	1.7
선진국	4.3	0.1	3.9	3.4	1.3	0.8	1.3	0.1	-1.7	-1.3
신흥국	4.8	4.9	11.9	7.8	7.8	8.0	3.6	4.8	2.8	4.1

주: 1)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3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3.4%를 기록하였음.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4/4분기 1.8%보다 0.1%p 하락한 1.7%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은 같은 기간 4.9%에서 5.5%로 0.6%p 상승함.

○ WTI 현물지수는 미국의 원유 수요 확대로 전분기대비 14.3% 상승하였으나 두바이 현물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CRB지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1.5%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2				2013		2012				2013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계	3.4	3.4	3.2	3.2	3.4	두바이 현물지수	107.7	103.6	106.3	107.5	107.3
선진국	2.0	1.9	1.8	1.8	1.7	WTI 현물지수	93.8	92.1	92.2	88.1	100.7
신흥국	5.2	5.3	4.9	4.9	5.5	CRB 상품지수 ²⁾	301.5	288.6	299.7	298.7	297.2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가. 미국경제

2013년 1/4분기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3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세금인상¹⁾과 정부지출 축소에도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주택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4/4분기보다 1.4%p 상승한 1.8%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²⁾ 등으로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2.6% 증가하였음.

1)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부유층 증세 등 세금부담 증가.

- 민간투자는 주택투자(14.0%)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6.1%p 상승한 7.4%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는 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 등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전분기대비 12.8%p 하락한 0.4% 증가에 그침.
-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 0.4% 감소하였으며 정부지출도 4.8% 줄었음.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¹⁾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1.8	2.2	2.5	1.3	4.1	2.0	1.3	3.1	0.4	1.8
민간소비	2.5	1.9	1.0	1.7	2.0	2.4	1.5	1.6	1.8	2.6
서비스	1.9	1.2	1.9	1.8	0.3	1.3	2.1	0.6	0.6	1.7
재화	3.8	3.1	-1.0	1.4	5.4	4.7	0.3	3.6	4.3	4.4
민간투자	5.2	9.8	12.5	5.9	33.9	6.1	0.7	6.6	1.3	7.4
설비	8.6	8.0	14.5	19.0	9.5	7.5	3.6	-1.8	13.2	0.4
주택	-1.4	12.1	4.1	1.4	12.1	20.5	8.5	13.5	17.6	14.0
수출	6.7	3.4	4.1	6.1	1.4	4.4	5.3	1.9	-2.8	-1.1
수입	4.8	2.4	0.1	4.7	4.9	3.1	2.8	-0.6	-4.2	-0.4
정부지출	-3.1	-1.7	-0.8	-2.9	-2.2	-3.0	-0.7	3.9	-7.0	-4.8

주: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³⁾는 소득세 감면 종료, 부유층에 대한 증세, 시퀘스터 발동 등 재정 건전화에 위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2013년 경제성장이 3월 예상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FOMC는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3년 3월의 2.3~2.8%에서 2.3~2.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 전망치는 3월의 2.9~3.4%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였음.
- 고용시장 여건과 민간소비,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시퀘스터 등 정부지출 축소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함.

2) 부동산과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가계 순자산은 2012년 4/4분기 67조 3,000억 달러에서 2013년 1/4분기 70조 3,000억 달러로 3조 달러 증가하였음.

3) FOMC(2013. 6),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IMF는 2013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하였으나 2014년 전망치의 경우 2013년 1월 전망치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음.⁴⁾

○ IMF는 미국의 재정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였으며 Fed가 최소한 금년 말까지 현재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warranted)하였음.

〈내수부문〉

■ 소매판매 증가세는 4월까지 둔화되었다가 5월 소폭 상승하였음.

○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소득세율 인상과 정부예산 삭감으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0%를 나타냈으며, 4월 0.1%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그러나 자동차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p 상승한 0.6%를 기록하였음.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정부지출 자동삭감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6.9p 하락한 62.8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4월과 5월, 주가 상승 및 주택시장 회복,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69.0, 76.2를 나타내며 상승하였음.

■ 2013년 1/4분기 주택경기는 신규 및 기존주택 판매⁵⁾와 신규주택착공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음.

○ 신규주택착공호수는 1/4분기 6.8% 증가하며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후, 4월 14.8% 감소하였다가 5월 6.8% 증가로 전환하였음.

○ 주택가격지수는 2012년 1/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3년 1/4분기 전분기대비 5p 상승한 150.2, 4월 155.4를 기록하였음.

4) IMF(2013. 6),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13 Article IV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 신규주택판매는 전분기대비 16.8%, 기존주택판매는 전분기대비 1.0% 증가하였음.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7.5	5.3	1.1	1.8	1.7	0.3	1.2	1.4	1.0	0.1	0.6
소비자신뢰지수 ²⁾	58.1	67.1	50.0	53.9	67.5	65.3	65.7	69.7	62.8	69.0	76.2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4.5	28.0	7.8	8.4	6.4	3.7	5.5	14.7	6.8	-14.8	6.8
주택가격지수 ⁴⁾	140.0	141.2	139.7	137.5	137.2	140.0	142.5	145.2	150.2	155.4	-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1/4분기 증가하였다가 4월과 5월 개선 추세가 약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1.0%를 나타냈으나 4월에는 제조업 생산 감소와 유틸리티 부문의 생산 급감⁶⁾ 등으로 -0.4%를 기록하였고 5월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0.0%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1/4분기 78.0, 4월과 5월 각각 77.9, 77.7을 기록하며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12년 4/4분기 50.6에서 2013년 1/4분기 52.9로 2.3p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 부진과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 경기선행지수는 제조업 부진과 예산자동삭감 등으로 2013년 1/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6) 2013년 4월 미국 유틸리티부문의 생산이 급락한 이유는 3월에 이상 저온을 기록했으나 4월에는 정상을 되찾았기 때문임(유틸리티부문의 생산(전월대비, 연율): 2013년 3월 6.4% → 4월 -3.7%).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3.4	3.6	1.2	1.2	1.3	0.7	0.1	0.6	1.0	-0.4	0.0
설비가동률 ²⁾	76.8	77.7	77.1	77.9	78.0	77.7	77.4	77.6	78.0	77.9	77.7
ISM제조업PMI	55.2	51.7	52.9	52.2	53.0	52.3	50.9	50.6	52.9	50.7	49.0
경기선행지수 ³⁾	91.3	93.1	91.5	91.8	92.7	93.0	93.0	93.5	94.3	95.1	95.2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013년 들어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은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임.

- 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2013년 1/4분기 62만 2,000명으로 전분기대비 4,000명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는 1/4분기 35만 7,000명으로 전분기대비 2만 2,000명 줄어들었고 4월에도 1만 4,000명 감소하였음.
- 2013년 1/4분기 실업률은 7.7%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과 5월 7.5%, 7.6%를 나타내며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 포괄적 실업률도 2013년 1/4분기 14.2%, 4월 13.9%, 5월 13.8%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7%를, 그리고 4월 1.1%, 5월 1.4%를 기록하는 등 2012년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1/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였으며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4월과 5월에는 각각 1.7% 상승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5%를 나타냈으며 휘발유 및 식품가격 하락으로 4월 0.6%, 5월 1.7%를 기록함.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4분기 1.8%, 4월과 5월 1.7%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 물가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	8.9	8.1	9.0	8.7	8.3	8.2	8.0	7.8	7.7	7.5	7.6
포괄적 실업률(u-6) ²⁾ (%)	15.9	14.7	16.1	15.6	14.9	14.7	14.8	14.4	14.2	13.9	13.8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10.3	219.3	43.5	57.0	78.7	32.4	45.6	62.6	62.2	19.9	19.5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40.9	37.5	40.8	39.0	37.2	37.8	37.1	37.9	35.7	34.3	35.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3.2	2.1	3.8	3.3	2.8	1.9	1.7	1.9	1.7	1.1	1.4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2.1	1.9	2.2	2.3	2.3	2.0	1.9	1.9	1.7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6.0	1.9	6.9	5.4	3.4	1.0	1.5	1.7	1.5	0.6	1.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2.6	2.7	3.0	3.0	2.7	2.5	2.2	1.8	1.7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나. 유로경제

2013년 1/4분기 유로경제는 키프로스 사태와 이탈리아 정정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3년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하며 전분기 -0.6%에 비해 감소폭이 0.3%p 축소되었으나,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및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주요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긴축으로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음.

○ 민간소비 지출은 고용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침.

- 고정자본투자는 수출과 내수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음.
- 정부지출은 재정긴축으로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수출은 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0.8%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전분기대비 1.1% 줄어들었음.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EA17 GDP	1.5	-0.6	0.2	0.1	-0.3	-0.1	-0.2	-0.1	-0.6	-0.3
민간소비	0.1	-1.3	-0.4	0.2	-0.5	-0.2	-0.5	-0.2	-0.6	0.1
고정자본투자	1.5	-4.1	-0.2	-0.3	-0.5	-1.4	-1.7	-0.9	-1.4	-1.6
정부지출	-0.1	0.0	0.1	-0.3	0.0	0.2	-0.3	-0.2	-0.0	-0.1
수출	6.3	2.6	1.2	1.3	0.0	0.5	1.6	0.8	-0.9	-0.8
수입	4.2	-1.0	0.4	0.5	-1.4	-0.4	0.4	0.2	-1.2	-1.1

자료: Eurostat(2013, 6).

■ 지역별로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 전기대비 양(+)의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⁷⁾

- 1/4분기 독일과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마이너스에서 각각 0.1%, 0.3%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 독일은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기에도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용안정이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⁸⁾
 -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기업의 재고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2012년 4/4분기 -0.2% 성장에서 회복하였음.
- 프랑스(-0.2%), 이탈리아(-0.6%)와 스페인(-0.5%)의 경우 재정 건전화와 투자 감소, 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7) 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참조.

8) 한국은행(2013, 5), 해외경제포커스.

- ECB는 재정위기 지속, 디레버리징 및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 지속으로 201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12월 전망 -0.5%에서 -0.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음.⁹⁾
 - 유로경제가 2013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 2013년 하반기에 대외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개선 및 완화적 통화정책기조에 힘입어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긴축 강도가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1/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각각 0.3%, 0.9% 증가함에 따라 0.3% 늘어났으며 4월에도 0.4% 증가하였음.
- 2013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3%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고 있음.
 - 1/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90.1로 전분기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4월에는 1.5p 하락한 88.6을 기록하였고, 5월 0.9p 상승한 89.5를 나타냈음.
 - 1/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23.7을 나타냈고 4월과 5월 -22.3, -21.9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9) ECB(2013. 6), Monetary policy decisions.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지역 ESI ¹⁾	101.7	90.4	99.1	94.4	95.0	92.3	87.4	86.8	90.1	88.6	89.5
소매판매 증가율 ²⁾ (%)	-0.3	-1.7	0.1	-0.5	-0.4	-0.8	0.1	-1.4	0.3	-0.2	1.0
소비자신뢰지수 ³⁾	-14.5	-22.3	-15.8	-20.5	-19.9	-19.5	-23.8	-26.2	-23.7	-22.3	-21.9
산업생산 증가율 ⁴⁾ (%)	3.1	-2.4	0.0	-0.5	-0.5	-0.5	0.1	-2.1	0.3	0.4	-
실업률 ⁵⁾ (%)	10.2	11.4	10.2	10.6	10.9	11.3	11.5	11.8	12.1	12.1	12.2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2.7	2.5	2.7	2.9	2.7	2.5	2.5	2.3	1.8	1.2	1.4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
+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Eurostat.

〈고용과 물가〉

■ 2013년 1/4분기 유럽 권역별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지역 주요국의 2013년 1/4분기 실업률은 8.0%, 북유럽의 경우 6.8%로 두 지역 모두 전분기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침.
- 반면 2013년 1/4분기 남유럽 실업률은 스페인의 재정긴축 등으로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20.7%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2년 3/4	7.8	6.6	10.3	19.5	2.3	1.6	4.2	2.5
2012년 4/4	7.9	6.7	10.4	20.2	2.1	1.9	3.9	2.1
2013년 1/4	8.0	6.8	10.7	20.7	1.9	1.2	2.7	1.3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

■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유럽 전 지역에서 하락하였음.

-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4/4분기대비 0.2%p 하락한 1.9%를 기록하였음.
- 동유럽과 남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대비 1.2%p, 0.8%p 하락한 1.2%, 1.3%를 나타냈으며 동유럽의 경우 1.2%p 낮아진 2.7%를 기록함.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3.0	0.7	0.5	0.4	-0.1	0.6	0.2	0.2	-0.7	0.1
민간소비	1.7	0.7	-0.5	1.3	-0.3	0.4	0.1	0.1	-0.3	0.8
고정자본투자	6.4	-1.9	0.2	0.4	0.8	-0.9	-1.9	-0.4	-1.1	-1.5
수출	7.9	4.5	0.5	2.1	-0.5	1.2	3.1	1.4	-2.4	-1.8
수입	7.5	2.6	2.2	1.7	-0.4	-0.2	2.3	0.6	-1.3	-2.1
프랑스 GDP	2.0	0.0	0.0	0.2	0.1	0.0	-0.2	0.1	-0.2	-0.2
민간소비	0.5	-0.3	-0.9	0.3	-0.3	0.3	-0.5	0.1	0.1	-0.1
고정자본투자	3.0	-1.2	0.1	0.0	1.1	-1.3	-0.2	-0.7	-0.8	-1.0
수출	5.6	2.5	0.8	0.3	1.9	0.4	0.5	0.3	-0.7	-0.4
수입	5.3	-0.9	-2.1	0.2	-1.6	0.9	0.1	0.0	-1.0	0.2
이탈리아 GDP	0.4	-2.4	0.1	-0.1	-0.7	-1.0	-0.6	-0.3	-0.9	-0.6
민간소비	0.1	-4.2	-0.1	-0.5	-1.0	-1.8	-0.9	-1.2	-0.8	-0.5
고정자본투자	-1.4	-8.0	-0.7	-1.4	-2.2	-3.6	-1.4	-1.2	-1.8	-3.3
수출	6.6	2.2	0.2	1.1	0.8	0.0	0.6	1.1	0.1	-1.9
수입	1.1	-7.8	-2.2	-1.2	-2.5	-3.3	-0.7	-1.8	-1.1	-1.6
스페인 GDP	0.4	-1.4	0.2	0.0	-0.5	-0.4	-0.4	-0.3	-0.8	-0.5
민간소비	-1.0	-2.1	-0.2	-0.6	-1.0	0.5	-1.1	-0.5	-2.0	-0.4
고정자본투자	-5.3	-9.1	-1.2	-0.7	-3.3	-2.5	-3.1	-1.3	-3.9	-1.1
수출	7.6	3.1	1.2	3.5	0.1	-2.6	1.8	5.1	-0.9	-1.3
수입	-0.9	-5.0	-2.0	0.8	-2.8	-2.0	-1.3	2.7	-4.8	-1.7
영국 GDP	1.1	0.2	0.1	0.6	-0.1	0.0	-0.5	0.7	-0.2	0.3
민간소비	-0.4	1.1	0.0	-0.1	0.6	0.1	0.6	0.2	0.4	0.5
고정자본투자	-2.4	0.5	6.5	-1.1	-1.2	4.1	-2.1	-1.6	-4.9	0.2
수출	4.5	0.9	-5.2	1.1	4.7	-1.7	-0.6	1.9	-1.9	-0.1
수입	0.3	2.8	-0.7	1.0	1.1	0.4	1.6	0.6	-1.0	-2.0

자료: Eurostat; Bloomberg.

다. 일본경제

2013년 1/4분기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시행의 영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임.

〈최근 동향〉

■ 2013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와 수출 회복으로 2012년 4/4분기대비 0.7%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음.

- 1/4분기 민간소비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과 내구재 소비¹⁰⁾가 늘어나 전분기보다 0.5%p 높아진 0.9% 증가함.
- 주택투자는 1.9%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2년 4/4분기보다 회복된 -0.3%를 기록하였음.
- 공공투자는 2012년 4/4분기보다 2.3%p 낮은 0.4% 증가함.
- 수출은 엔화 약세와 對미국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하였고 수입 증가는 민간소비 개선으로 전분기대비 3.2%p 확대된 1.0%를 기록하였음.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0.6	1.9	-0.8	2.7	0.2	1.2	-0.2	-0.9	0.3	1.0
민간소비	0.4	2.3	0.9	1.4	0.7	0.8	0.2	-0.4	0.4	0.9
설비투자	3.3	2.1	-0.3	1.8	8.1	-2.5	-0.2	-3.3	-1.5	-0.3
주택투자	5.5	3.0	-2.4	4.9	-0.9	-1.5	2.3	1.5	3.5	1.9
정부지출	1.4	2.4	0.3	0.2	0.3	1.5	0.2	0.4	0.7	0.4
공공투자	-7.5	12.5	0.9	-0.5	-2.4	7.0	6.3	3.2	2.7	0.4
수출	-0.4	-0.1	-7.1	9.2	-3.0	2.7	0.0	-4.4	-2.9	3.8
수입	5.9	5.4	-0.4	3.3	1.7	2.0	1.8	-0.3	-2.2	1.0

자료: 일본 내각부(2013. 5).

10) 내구재소비 증가(2012년 4/4분기 -6.5% → 2013년 1/4분기 3.1%)는 친환경자동차 구입보조금 종료에 따른 영향 소멸로 신차 구입 증가 등에 기인함.

〈생산 및 내수부문〉

- 광공업 생산은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1/4분기 0.6%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4월과 5월 각각 0.9%, 2.0%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소매판매도 개선되었음.
 - 1/4분기 소매판매는 0.6%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0.6%, 1.5% 늘어남.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43.3, 4월 44.4, 5월 45.6을 나타내며 상승폭이 확대됨.
- 1/4분기 투자는 적극적인 내수부양책과 엔저에 따른 수출 회복 기대로 회복세를 보였음.
 - 주택착공호수는 2012년 4/4분기 친환경 주택지원제도 종료 효과¹¹⁾가 소멸됨에 따라 2013년 1/4분기 5.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4월과 5월 각각 5.8%, 14.5%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1/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4월 8.8% 감소하였다가 5월 기업설비투자가 확대되어 10.5% 증가하였음.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8	0.6	5.4	0.4	0.8	-2.2	-3.2	-1.9	0.6	0.9	2.0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8	-1.0	0.8	1.0	0.3	-0.9	-0.2	0.6	0.6	1.5
소비자신뢰지수 ³⁾	37.8	40.0	37.3	38.5	39.5	40.6	40.5	39.3	43.3	44.4	45.6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2.6	5.8	7.9	-4.5	3.7	6.2	-1.1	15.0	5.1	5.8	14.5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7.8	-4.6	0.0	0.2	1.5	-2.6	-1.3	-0.8	0.0	-8.8	10.5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11) 2012년 10월 친환경 주택지원제도 종료에 임박하면서 신규주택착공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4/4분기 15.0% 증가하였음.

〈고용과 물가〉

■ 2013년 1/4분기 고용시장은 완만한 실업률 하락세 지속과 유효구인배율 상승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2%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 각각 4.1%를 나타냄.
- 유효구인배율은 1/4분기 0.85, 4월 0.89, 5월 0.90을 나타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신선식품 가격 하락폭¹²⁾ 확대로 2012년 4/4분기대비 0.4%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도 -0.7%를 나타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4분기와 4월, 5월 각각 -0.8%, -0.6%, -0.4%로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줄어들고 있음.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4.6	4.4	4.4	4.5	4.5	4.4	4.3	4.2	4.2	4.1	4.1
유효구인배율(배) ¹⁾	0.65	0.80	0.65	0.71	0.75	0.80	0.81	0.82	0.85	0.89	0.9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3	0.0	0.1	-0.3	0.3	0.2	-0.4	-0.2	-0.6	-0.7	-0.3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0	-0.6	-0.5	-1.1	-0.6	-0.5	-0.6	-0.5	-0.8	-0.6	-0.4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12) 신선식품 가격(전년동기대비): 2012년 1/4분기 -3.5% → 2013년 1/4분기 -7.5%

라. 중국경제

2013년 1/4분기 중국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소비가 둔화되어 성장세가 소폭 줄어들었음.

〈최근 동향〉

■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대비 0.2%p 하락한 7.7%를 기록함.

-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 개발 투자 확대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0.9%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20.6%, 20.4% 늘어나는 등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4분기 수출입은 해외수요 확대 등으로 각각 18.4%, 8.5% 증가하였음.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질 GDP(%) ¹⁾	9.3	7.8	2.3 (9.1)	1.8 (8.9)	1.6 (8.1)	1.9 (7.6)	2.1 (7.4)	2.0 (7.9)	1.6 (7.7)	-	-
고정자산투자 ²⁾ (%)	23.8	20.6	24.9	23.8	20.9	20.4	20.5	20.6	20.9	20.6	20.4
수출 증가율(%)	20.7	7.9	20.7	14.4	8.9	10.5	4.5	9.4	18.4	14.7	1.0 ³⁾
수입 증가율(%)	25.3	4.3	24.7	20.9	9.9	6.5	1.5	2.8	8.5	16.8	-0.3

주: 1) 전기(월)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5월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외환관리국이 홍콩에
서의 투기성자금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대홍콩 수출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임.

* 대홍콩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월 92.9% → 4월 57.2% → 5월 7.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내수부문〉

■ 소매판매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소비자신뢰지수는 위축되었으나 기업가신뢰지수는 소폭 개선되었음.

- 2013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소득증가세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부진과 낭비성 재정지출 억제·반부패 정책¹³⁾ 등으로 전분기대비 2.5%p 줄어든 12.4% 증가하는데 그침.
- 4월과 5월 소매판매 증가세는 소폭 확대되어 12.8%, 12.9% 증가하였으나 2012년 2/4분기에 비해 둔화되었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105.1을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0.1p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4월 103.0으로 감소하였음.
- 기업가신뢰지수는 1/4분기 122.4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2.0p 상승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7.1	14.5	17.3	17.5	15.0	13.9	13.5	14.9	12.4	12.8	12.9
소비자신뢰지수	103.8	102.4	104.7	99.3	103.0	102.2	99.5	105.0	105.1	103.0	-
기업가신뢰지수 ²⁾	130.6	120.3	130.0	120.9	123.0	121.2	116.5	120.4	122.4	-	-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기업재고 증

13) 반부패정책 시행으로 접대비 등 기업의 소비지출이 위축되었는데 1/4분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10.3%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12.4%)보다 낮음. 특히, 요식업 매출의 증가율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요식업(접대비 등) 지출이 2.6% 감소함에 따라 2012년 13.6%에서 2013년 1분기 8.4%로 급락하였음(국제금융센터(2013. 4), 「중국, 금년 1/4분기 성장률과 전망」.)

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5%p 감소한 9.5%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 각각 9.3%, 9.2%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음.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⁴⁾는 전분기와 동일한 50.5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50.6, 5월 50.8로 나타났음.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13.8	10.0	13.8	12.8	11.7	9.5	9.1	10.0	9.5	9.3	9.2
구매자관리지수 ²⁾	51.3	50.8	50.9	49.9	51.5	51.3	49.7	50.5	50.5	50.6	50.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PMI,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2013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2012년 4/4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춘절 연휴 수요 증가로 2.4%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 각각 2.4%, 2.1%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2012년 하반기 이후 2%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7%, 4월 -2.6%, 5월 -2.9%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임.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2.6	6.3	4.6	3.8	2.9	1.9	2.1	2.4	2.4	2.1
생산자물가 상승률(%)	6.1	-1.7	7.1	3.1	0.1	-1.4	-3.3	-2.3	-1.7	-2.6	-2.9

주: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3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동기대비기준으로는 2012년 4/4분기와 같은 1.5%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전기대비기준으로는 0.8% 성장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 2013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 유지에도 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5% 성장하는데 그쳤음.

- 민간소비는 정책효과 소멸¹⁵⁾과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보다 1.2%p 하락한 1.5% 증가에 그쳤음.
-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미국의 재정긴축 시행과 유로지역 경기 침체 지속 등 대외 불안요인과 기저효과로 11.9% 감소함.
- 재화수출은 4.5% 증가하였으나 재화수입은 1.5% 증가하는데 그쳤음.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3.6 (0.8)	3.4 (0.4)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 민간소비	2.1	1.2	2.4	1.3	1.0	1.7	2.7	1.7	1.5
- 설비투자	1.1	-3.6	3.6	8.8	-3.5	-6.9	-5.2	-1.9	-11.9
- 건설투자	-3.6	-1.7	-4.7	-0.4	-3.1	-0.3	-4.2	-2.2	2.4
- 재화수출 ³⁾	9.8	3.2	9.9	4.7	2.4	3.2	4.7	3.8	4.5
- 재화수입 ³⁾	7.9	3.4	8.6	4.4	-0.1	0.3	1.7	1.5	1.5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2011년 수치는 확정치, 2012년과 2013년 1/4분기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5)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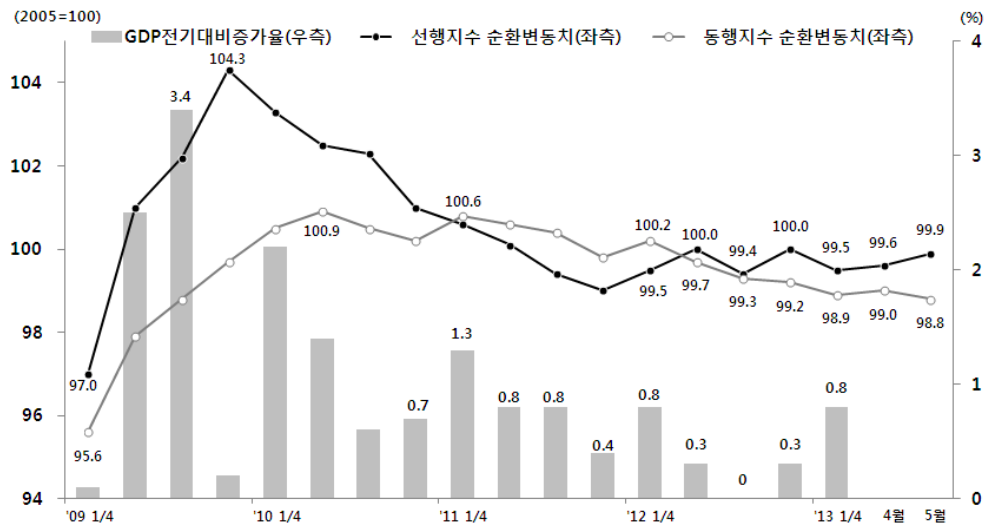
■ 2013년 1/4분기부터 5월까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99.0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1/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와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98.9를 기록하였음.

- 4월 99.0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다가 5월 광공업생산 감소로 0.2p 하락한 98.8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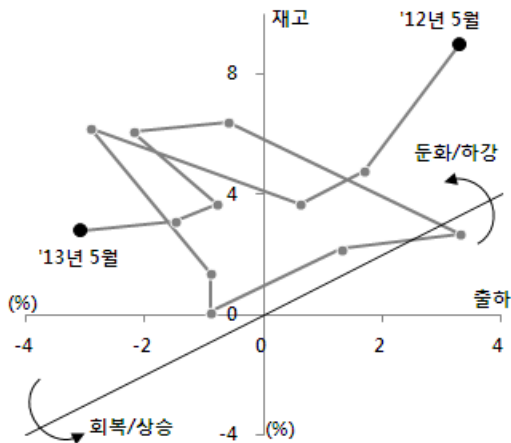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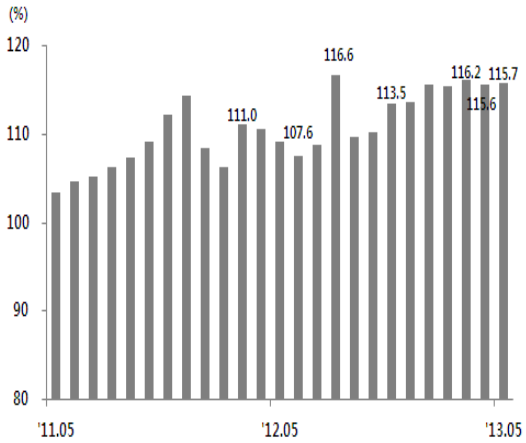
○ 1/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99.5로 기준치 100 이하를 나타냈고 5월과 6월 99.6, 99.9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13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¹⁶⁾의 경우 2013년 5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였는데 4월 1.5% 감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재고 증가폭은 전월 3.0%에서 2.8%로 축소되었음.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15.7%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소매판매의 경우 가계의 소득 증가세 둔화로 1/4분기 전분기대비 2.3%p 감소한 0.2% 증가에 그쳤으나 4월 내구재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가 5월 0.5% 증가에 그쳤음.

○ 내구재 판매는 2013년 1/4분기 1.2%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승용차 판매 호조로 5.8%, 5월에는 승용차 판매 둔화로 1.5%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비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1/4분기 1.8%, 4월 1.1%, 5월 0.8%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1/4분기 1.0% 감소, 4월 0.9% 증가, 5월 다시 0.2% 감소로 2012년 4/4분기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16) 2013년 3~5월의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¹⁾	4월 ¹⁾	5월 ¹⁾
소매 판매	4.5	2.8	1.4	2.6	2.5	2.3	0.2	2.1	0.5
- 내구재	10.6	4.4	2.9	6.6	7.5	5.3	1.2	5.8	1.5
* 승용차	7.0	-5.2	1.5	-1.8	15.5	2.4	4.0	9.5	0.8
- 준내구재	3.7	-0.3	-1.0	-3.5	0.3	-1.1	1.8	1.1	0.8
- 비내구재	2.1	3.3	1.6	3.0	1.0	2.3	-1.0	0.9	-0.2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지수는 2013년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들어 설비투자지수는 1/4분기 -15.4%, 4월 -12.1%, 5월 -11.6%로 2012년보다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201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국내기계수주는 1/4분기와 4월에 각각 10.9% , 0.3% 감소하였으나 5월에는 16.9% 증가하였음.

〈표 22〉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¹⁾	4월 ¹⁾	5월 ¹⁾
설비투자지수	4.0	10.7	-2.7	-8.2	-6.9	-2.0	-15.4	-12.1	-11.6
- 기계류	2.7	12.8	-2.6	-7.8	-10.3	-2.2	-20.8	-16.1	-14.9
- 운송장비	9.8	2.0	-3.1	-10.1	7.2	-1.1	10.4	6.7	3.6
국내기계수주	7.6	-1.1	-19.8	-10.4	-21.4	-13.4	-10.9	-0.3	16.9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	-
- 건설기성 ²⁾	-6.4	-4.9	-9.7	-2.3	-5.6	-5.8	5.2	19.6	12.5
건축	-6.9	-3.2	-12.5	-6.2	-7.6	-7.6	4.9	25.1	16.8
토목	-5.6	-7.1	-6.1	3.2	-3.4	-3.5	5.5	12.4	7.1
- 국내건설수주	6.1	33.3	-0.7	-13.6	-33.1	-8.9	-41.2	-18.6	-19.1
건축	14.0	27.4	-7.0	-7.1	-27.4	-8.7	-33.6	-26.7	-46.4
토목	-6.0	42.1	12.5	-26.3	-43.7	-9.3	-51.3	-1.0	79.3

주: 1) 잠정치.

2) 2012년 12월 수치도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3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국내건설수주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성의 회복세로 2.4% 증가하였음.

○ 건설기성은 2013년 들어 건축과 토목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건설기성은 5.2%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9.6%, 12.5% 증가하였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4분기 41.2%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 18.6%, 19.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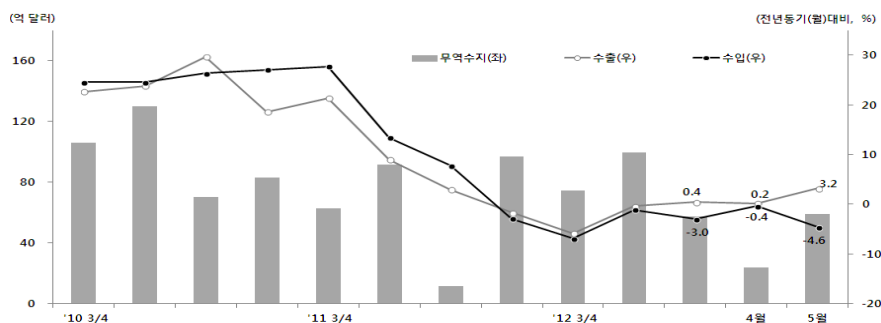
〈대외거래〉

■ 2013년 5월 수출¹⁷⁾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483억 6,300만 달러, 수입¹⁷⁾은 4.6% 감소한 424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9억 1,600만 달러 흑자임.

○ 수출은 원료 및 연료(-5.4%)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화학 공업품(4.6%)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자재(-10.2%)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재(5.8%)와 자본재(5.1%)는 증가하였음.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 료: 관세청(통관 기준).

17) 수출과 수입은 2013년 5월까지 확정치임.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4.5	14.2	1.8	4.2	0.6	4.6	1.0	-0.9	1.6
	원료 및 연료	60.2	23.4	-6.8	2.8	9.2	6.2	3.3	-10.7	-5.4
	경공업 제품	19.2	10.2	3.2	3.2	-0.2	3.9	-3.4	3.8	1.4
	중화학 공업품	15.2	-0.2	-2.1	-7.2	-1.9	-2.9	0.4	1.6	4.6
	전체	19.3	3.0	-1.7	-5.2	-0.4	-1.3	0.5	0.4	3.2
	금액(억 달러)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462.7	483.6
수입	소비재	25.6	6.3	-1.8	-2.3	6.4	2.0	5.3	12.9	5.8
	원자재	31.4	8.9	-0.8	-7.0	-0.8	0.1	-3.4	-3.0	-10.2
	자본재	7.9	4.8	-6.9	-10.1	-3.8	-4.2	-5.0	0.9	5.1
	전체	23.3	7.6	-2.6	-7.4	-1.1	-0.9	-3.0	-0.3	-4.6
	금액(억 달러)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438.2	424.4
무역수지		308	11.8	97.0	74.7	99.4	282.9	57.8	24.5	59.2

주: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3년 5월 미국(21.6%)과 중국(16.6%)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동남아(15.1%)와 중국(2.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음.

○ 일본(-11.6%), EU(-14.0%), 중동(-13.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함.

〈표 2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미국	57.5	21.6	260.9	1.5	35.4	-7.5	175.7	-10.4
일본	27.4	-11.6	143.0	-10.4	49.1	-7.1	258.3	-6.5
EU	39.3	-14.0	200.7	-7.1	45.2	-0.7	229.4	10.8
동남아	110.4	0.6	529.7	2.9	62.1	15.1	291.3	1.2
중동	29.4	-13.4	143.3	-6.8	93.5	-17.7	528.7	-5.0
중국	124.9	16.6	581.4	10.7	72.8	2.7	345.2	1.4
중남미	37.7	17.1	148.9	-8.0	14.6	-11.7	76.7	-9.7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3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나 4월과 5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음.

- 전산업생산은 2013년 1/4분기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지속되어 0.2% 증가하는데 그쳤음.
 - 그러나 4월 광공업생산의 회복세로 3.6% 증가하였다가 5월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광공업생산이 감소로 전환하며 1.1% 증가하는데 그쳤음.
- 광공업생산은 1/4분기 제조업(-1.8%), 자동차(-3.8%), ICT(-1.5%) 전분야에서 둔화되며 1.7% 감소하였음.
 - 자동차(4월 -1.1%, 5월 -1.4%)의 부진이 지속되고 5월 제조업의 생산 감소로 광공업 생산은 5월 1.4%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부진으로 2013년 1/4분기 0.8% 증가에 그쳤음.

〈표 25〉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¹⁾	4월 ¹⁾	5월 ¹⁾
전산업생산 ²⁾	3.3	2.6	0.6	0.7	0.1	1.0	0.2	3.6	1.1
광공업	5.9	3.6	1.1	-1.0	-0.1	0.8	-1.7	1.6	-1.4
- 제조업	6.0	3.8	1.0	-1.1	-0.2	0.8	-1.8	1.5	-1.5
- 자동차	14.6	10.7	3.2	-11.6	-2.3	-0.1	-3.8	-1.1	-1.4
- ICT	6.7	4.1	-2.3	-5.5	5.3	0.4	-1.5	3.2	0.7
서비스업	3.2	2.6	1.5	1.5	0.8	1.6	0.8	2.5	1.6
- 도매 및 소매업	3.8	1.9	0.1	0.5	0.4	0.7	-0.6	2.0	-0.4
- 운수업	4.5	0.8	0.8	1.2	2.1	1.2	2.0	4.4	1.8
- 숙박 및 음식점업	-1.3	-2.0	-3.3	1.1	-0.6	-1.2	-0.4	-0.8	-0.4
- 금융 및 보험업	6.8	5.9	1.6	1.8	2.2	2.8	1.4	3.8	2.2
- 부동산 및 임대업	-7.6	-6.0	-3.6	-6.0	-1.4	-4.3	-1.1	3.0	4.7

주: 1) 잠정치.

2)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3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추세를 지속하였고,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어 실질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

■ 2013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1.2%, 1.0%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

○ 이는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여 전기·수도·가스와 집세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공업제품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임.

-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1.6%, 공업제품은 1.0%, 전기·수도·가스는 4.9%, 집세는 3.0%,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1.0%로 나타났다.

■ 2013년 1/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0.7p 상승한 107.8을 기록했으며 5월 114.9로 상승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임.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기대지수 ¹⁾	99.7	94.8	103.8	94.4	97.1	97.5	107.8	104.2	114.9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2	1.0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5.7	4.1	4.0	2.2	2.2	3.0	1.5	0.8	0.4
- 농축수산물	9.2	2.3	5.8	1.3	3.4	3.1	1.6	0.3	-1.2
- 공업제품	4.9	4.3	3.5	1.8	1.7	2.9	1.0	0.2	-0.1
- 전기·수도·가스	4.8	5.7	4.6	6.1	3.6	5.0	4.9	5.9	5.9
서비스	2.7	2.2	1.3	1.1	1.4	1.5	1.3	1.5	1.4
- 집세	4.0	5.0	4.5	4.0	3.4	4.1	3.0	2.7	2.7
- 공공서비스	-0.4	-0.2	0.7	0.6	1.1	0.5	1.0	0.9	0.9
- 개인서비스	3.7	2.4	0.6	0.6	0.7	1.1	1.0	1.3	1.3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1월에서 5월까지 고용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1.4%, 1.1%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청년 취업자 수는 1/4분기 3.0%, 4월 3.5%, 5월 2.2% 줄어들어 2012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고용률은 57.7%, 4월 59.8%, 5월 60.4%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 청년실업률은 2013년 1/4분기와 4월에는 각각 8.4%를 나타냈으나 5월에는 전월대비 1.0%p 하락한 7.4%를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SOC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공업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2013년 1/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3%, 2.4% 줄어들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4월 4.1%, 5월 2.6% 늘어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3년 1/4분기에 이어 2013년 4월과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2012년에 비해 둔화되었음.
- 2013년 1/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0.5%, 0.7% 줄어드는데 그쳤음.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1/4분기 3.1% 증가하였으나 4월 2.1%, 5월 1.6%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1.7	2.0	1.8	2.1	1.4	1.8	1.1	1.4	1.1
- 청년취업자	-0.9	0.0	-0.2	-1.4	-2.1	-0.9	-3.0	-3.5	-2.2
고용률	59.1	57.8	60.2	60.0	59.4	59.4	57.7	59.8	60.4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2	3.0
- 청년실업률	7.6	8.2	8.1	6.8	7.0	7.5	8.4	8.4	7.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6	-2.6	-1.4	0.1	-0.2	-0.9	-0.7	-1.3	-2.4
광공업	1.5	-2.7	-1.6	2.1	3.4	0.3	3.0	4.1	2.6
- 제조업	1.6	-2.5	-1.6	2.1	3.5	0.3	3.0	4.1	2.6
SOC 및 기타서비스업	2.1	3.4	2.8	2.2	1.1	2.4	0.8	1.0	1.0
- 건설업	-0.1	4.8	1.9	0.9	-2.2	1.3	-3.7	-0.5	-0.7
- 도소매음식숙박	0.4	1.8	2.6	2.1	1.1	1.9	-0.7	-1.2	-0.3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3	4.5	2.0	-0.4	-0.4	1.4	-0.4	3.0	2.9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9	3.7	3.4	3.5	2.3	3.2	3.1	2.1	1.6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3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여 흑자율은 상승하였음.

○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 3,000원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근로소득 증가율¹⁸⁾이 2.5%로 낮아졌기 때문임.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9만 1,000원으로 2012년 4/4분기대비 4.0%p 하락한 1.7% 증가에 그쳤으나 흑자액은 84만 8,000원으로 10.8% 늘어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 3,000원으로 1.0% 감소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도 2.4% 줄어들어 흑자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 평균소비성향이 75.0%로 전년동기보다 2.0%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5.0%로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함.

18) 근로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2년 1/4분기 8.2% → 2/4분기 7.5% → 3/4분기 7.8% → 4/4분기 7.3%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384.2	412.4	394.2	414.2	409.3	407.7	419.3
- 증가율	5.8	6.9	6.2	6.3	5.4	6.1	1.7
- 실질소득 증가율	1.9	3.8	3.7	4.6	3.6	3.8	0.3
처분가능소득(만 원)	311.9	333.3	321.9	335.0	336.1	331.7	339.1
- 증가율	5.5	6.8	6.8	6.3	5.7	6.4	1.7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39.3	256.8	238.6	246.7	241.2	245.7	254.3
- 증가율	5.0	5.3	3.6	1.0	1.4	2.7	-1.0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1.0	2.2	1.1	-0.7	0.3	0.5	-2.4
흑자액(만 원)	72.7	76.5	83.3	88.3	94.8	86.0	84.8
- 증가율	8.3	12.2	17.5	24.8	18.5	18.4	10.8
평균소비성향 ¹⁾	76.7	77.0	74.1	73.6	71.8	74.1	75.0
흑자율 ²⁾	23.3	23.0	25.9	26.4	28.2	25.9	25.0

주: 1)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3년 2/4분기 중 기준금리는 2.50%로 0.25%p 인하됨. 국고채 금리는 분기 초반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2.44%까지 하락하였으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분기 말 2.97%까지 상승함.

■ 2013년 2/4분기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p 인하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과 정부 추경 집행과의 정책 조화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

■ 2013년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과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전분기대비 2bp 하락한 2.66%를 기록하였음.

- 4월 국고채 금리는 4월 11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급등하였으나,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반락하여 월 평균 2.55%를 기록함.
- 5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5월 9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미국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59%로 상승함.
- 6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월 평균 2.87%를 기록함.

■ 2013년 2/4분기 CD(91일) 평균 금리는 2.74%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분기대비 9bp에 불과하여 장단기 금리차이가 전분기대비 축소되었고,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CD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CD 발행 부진 등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음.
 - 2013년 1/4분기 평균 2.83%에서 2/4분기 평균 2.74%로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9bp 낮아짐.
- ‘국고채(3년) - CD(91일)’간 스프레드는 1/4분기 평균 -15bp에서 2/4분기 평균 -8bp로 축소됨.

- 회사채금리는 국고채금리와 연동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현상 지속으로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분기 말에는 신용경계감 증대로 신용스프레드가 넓어짐.
- 1/4분기 평균 39bp를 기록한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간 스프레드는 2/4분기 평균 36bp를 기록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구분	2011 2/4	2012 2/4	2013 1/4	2013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3.00	3.25	2.75	2.50	-0.25	-0.75
CD(91일)	3.46	3.54	2.83	2.74	-0.09	-0.80
국고채(3년)	3.68	3.39	2.68	2.66	-0.02	-0.73
회사채(3년, AA-)	4.46	4.04	3.07	3.02	-0.05	-1.02
스프레드(국고채-CD)	0.22	-0.15	-0.15	-0.08	0.07	0.07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78	0.65	0.39	0.36	-0.03	-0.29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Bloomberg.

〈환율〉

2013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22.3원으로 1/4분기 1,084.8원보다 37.5원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었음.

-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북한 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등락이 반복되었고, 평균적으로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4월 원/달러 환율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월초 상승한 이후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평균적으로는 전월대비 상승함.

- 5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 발표로 월초까지 하락한 이후 미국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평균적으로는 전월대비 하락함.
- 6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출구전략 시행 시점 언급,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 지속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2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152.1	1,132.9	1,098.7	1,084.8	1,122.3	1,121.4	1,111.8	1,135.7
엔/달러	80.1	78.6	80.4	92.4	98.8	97.9	101.1	97.2
달러/유로	1.283	1.251	1.294	1.320	1.306	1.303	1.297	1.321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Bloomberg.

■ 2/4분기에 달러화는 유로존 불안 요인 발생, 미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가시화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에 강세를 지속함.

- 4월 달러화는 키프리스 구제금융 시행, 이탈리아 연정 출범에 따른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엔 약세에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강세를 보임.
- 5월 달러화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정치적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상향되면서 강세를 지속함.
- 6월 달러화는 미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 언급 전까지 양적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엔화가 미국 증시 약세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

〈주가지수〉

2013년 2/4분기 주가지수는 4월 초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1,900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엔화 약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섬. 6월 들어 미연준 양적완화 출국전략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1,83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음.

■ 2013년 2/4분기 주가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분기 초반 하락하였다가 엔화 약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후반에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로 다시 하락하면서 전분기 증가보다 170포인트 하락한 1,835포인트를 기록함.

- 4월 종합주가지수는 북한 리스크, 주요국 경제제표 부진 등으로 1,900까지 하락하였다가 예상보다 양호한 국내기업 실적 발표 등으로 반등하였음(4월 증가 1,964 포인트).
- 5월 종합주가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엔화 약세 우려 완화 등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함(5월 증가 2,000포인트).
- 6월 종합주가지수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 중국 신용경색 및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규모 확대 등으로 전월대비 크게 하락한 1,835포인트를 기록함.

〈그림 5〉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3년 1/4분기 비보험 금융권 순수신은 증권부문 고객예탁금 증가, MMF 및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으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함.

■ 2013년 1/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하였음.

- 1/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2% 감소함.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미미하게 줄어들었으나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함.
- 1/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6.8% 감소함.
 -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6.1% 감소하였고 원수손해액은 전분기대비 6.0% 감소함.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17,097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
- 생보	89,732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
수입보험료	206,953	236,899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
지급보험금	117,221	139,863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
- 손보	27,364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
원수보험료	141,973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
원수손해액	114,609	138,455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
은행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 일반 ²⁾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 신탁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증권 ³⁾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자산운용 ⁴⁾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종금 ⁵⁾	-2,093	-52,656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2013년 1/4분기 비보험 금융권의 순수신은 종금권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수신금리 하락, CD 발행 부진으로 일반계정 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신탁계정 수신 증가로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7.5% 증가함.
-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대고객 RP 매도, CMA 순수신이 모두 크게 늘어나 전체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증가함.
- 투신권의 경우 주식형을 제외한 채권형, MMF, 채권혼합형에서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2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5%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 25.5% 증가한 48조 2,79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보험을 제외할 경우 15.1% 증가함.

■ FY2012 4/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부진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일반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25.5% 증가한 48조 2,796억 원을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중심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9.9% 증가한 31조 3,227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역성장,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에 그친 16조 9,569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생명보험	22.4 (5.6)	87.8 (5.8)	24.5 (16.5)	28.1 (35.9)	31.3 (32.3)	31.3 (39.9)	27.9 (24.8)	115.3 (31.3)
손해보험	16.1 (21.0)	61.0 (16.7)	16.8 (19.4)	16.7 (17.8)	18.1 (8.7)	17.0 (5.5)	16.3 (1.6)	68.5 (12.4)
합계	38.5 (11.5)	148.8 (10.0)	41.3 (17.6)	44.8 (28.5)	49.4 (22.6)	48.3 (25.5)	44.3 (15.1)	183.9 (23.6)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2 4/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 총자산 증가세가 개선된 반면 손해보험 총자산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726조 원을 기록함.

■ FY2012 4/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 총자산이 특별계정자산 증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손해보험 총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3.8% 증가한 726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의 경우 일반계정자산이 수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특별계정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0%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보험료적립금 및 퇴직연금 자산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3.1% 늘어난 156조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둔화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생명보험	458.2	458.2	505.4	529.2	547.8	569.8	525.6	569.8
	(3.5)	(10.0)	(10.3)	(4.7)	(3.5)	(4.0)	(4.0)	(24.4)
손해보험	129.8	129.8	138.5	146.0	151.8	156.5	153.3	156.5
	(5.3)	(27.0)	(6.7)	(5.4)	(4.0)	(3.1)	(2.7)	(20.5)
합계	588.0	588.0	643.9	675.2	699.6	726.3	678.9	726.3
	(3.9)	(13.3)	(9.5)	(4.8)	(3.6)	(3.8)	(3.7)	(23.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2 4/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1%p 낮아진 1.5%를 기록함.

■ FY2012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동시에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1.5%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총자본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0%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손실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1%p 하락한 1.9%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생명보험	1.8	2.4	8.4	1.9	1.9	1.4	1.4	6.6
손해보험	2.6	3.0	16.3	4.1	3.4	1.8	1.9	11.6
합계	2.0	2.6	10.2	2.4	2.3	1.5	1.5	7.8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 중심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9.9% 늘어난(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8%) 31조 3,227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2월까지 지속된¹⁾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39.9%(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0%)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0.1% 증가함.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의 증가세가 수익률 하락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주가지수 상승으로 특별계정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0%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수입보험료 ²⁾	22.4	87.8	24.5	28.1	31.3	31.3	27.9	115.3
	(5.6)	(5.8)	(16.5)	(35.9)	(32.3)	(39.9)	(24.8)	(31.3)
총자산	458.2	458.2	505.4	529.2	547.8	569.8	525.6	569.8
	(3.5)	(10.0)	(10.3)	(4.7)	(3.5)	(4.0)	(4.0)	(24.4)

주: 1) 괄호는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된 저축성보험부터 축소된 세제혜택이 적용됨.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2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사망보험 및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회복되면서 39.9%(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24.0%)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즉시연금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이 2013년 2월 15일 발효되면서 2월까지 급증세를 지속했으나 3월에는 세제개편 효과가 소멸되면서 FY2012 4/4분기 전체적으로 88.9%(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54.9%) 증가함.

- 1월과 2월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8.7%, 124.4%의 급증세를 나타냈으나 세제개편 효과가 소멸된 3월에는 6.6% 증가에 그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8.8%(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3.7%)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초회보험료 또한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생존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발효 이전인 1월과 2월 수입보험료가 급증세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면서 83.3%(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49.1%) 증가함.

- 한편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 효과가 소멸된 3월에도 31.4%의 양호한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비과세 저축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가 10%대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4.1% 증가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4.9% 감소하면서 수익률 논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초회보험료는 12.7%의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15.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변액보험 증가세 확대에 기여함.

○ FY2012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소폭 감소(-0.3%)한 반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80% 이상 증가하고 사망보험도 7.4%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4.6%의 증가율을 나타냄.

■ FY2012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일시적인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40.1% 증가함.

○ 최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마무리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FY2012 4/4분기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56.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FY201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생존	보험료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80,033	336,612
	증가율	16.1	5.0	42.6	107.5	108.6	88.9	54.9	87.6
	구성비	23.1	20.4	23.8	31.8	29.1	31.2	28.7	29.2
사망	보험료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74,842	308,411
	증가율	0.8	0.0	6.8	6.5	7.6	8.8	3.7	7.4
	구성비	32.2	32.7	31.1	27.1	24.6	25.1	26.8	26.7
생사 혼합	보험료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55,369	221,677
	증가율	29.0	16.3	68.5	91.7	79.9	83.3	49.1	81.1
	구성비	16.6	13.9	18.8	19.4	16.9	21.7	19.8	19.2
변액 보험	보험료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55,297	212,230
	증가율	0.3	9.7	-1.2	-5.4	1.3	4.1	4.1	-0.3
	구성비	23.7	24.2	21.3	18.4	16.9	17.7	19.8	18.4
개인계	보험료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265,540	1,078,929
	증가율	8.2	5.9	20.9	37.5	39.1	39.9	24.0	34.6
	구성비	95.6	91.3	95.1	96.7	87.5	95.6	95.1	93.6
단체	보험료	9,831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13,772	74,156
	증가율	-31.0	5.3	-32.0	1.5	-1.8	40.1	40.1	-3.1
	구성비	4.4	8.7	4.9	3.3	12.5	4.4	4.9	6.4
합계	보험료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79,312	1,153,086
	증가율	5.6	5.8	16.5	35.9	32.3	39.9	24.8	31.3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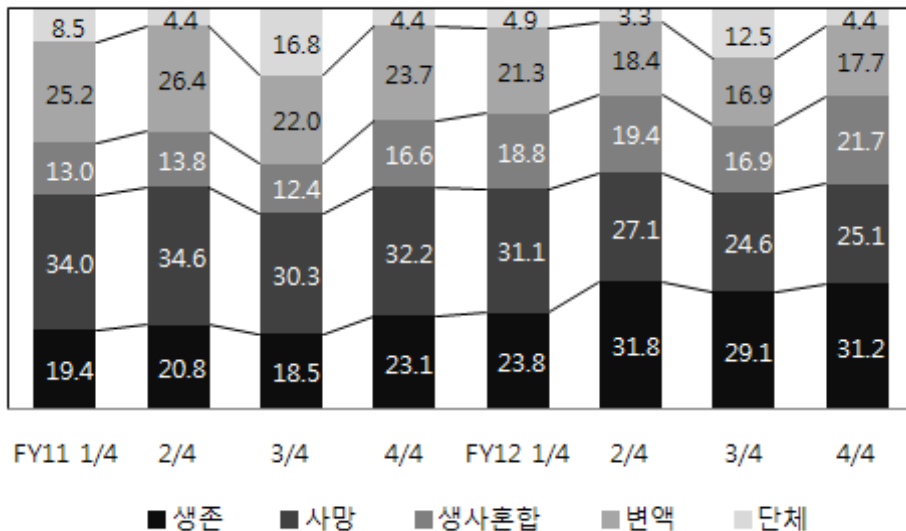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감.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8.1%p 증가한 31.2%로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5.1%p 증가한 21.7%로 나타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계정 저축성보험 비중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0%를 상회함.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1%p, 6.0%p 하락한 25.1%, 17.7%로 나타났으며, 단체보험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4.4%의 비중을 유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위 3사와 농협생명이 추가된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이어감.

- 상위 3사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등에서 높은 수입보험료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0.5%p 확대된 50.6%의 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농협생명 진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0%p 상승한 34.6%를 나타냈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4.5%p 하락한 14.8%로 나타남.
-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만이 상승하고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FY2012 4/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161 포인트 상승한 0.1272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상위 3개사	50.1	51.8	45.8	50.9	53.0	50.6	56.8	50.3
국내중소형사 ²⁾	30.6	28.4	37.2	33.2	33.2	34.6	26.6	33.9
외국사 ³⁾	19.3	19.8	17.0	15.9	13.8	14.8	16.6	15.8
허핀달지수 ⁴⁾	0.1111	0.1179	0.1031	0.1176	0.1308	0.1272	0.1453	0.1199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3년 3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생존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9%p 낮아진 47.0%로 나타남.

- 사망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한 58.5%를 나타냈으며, 생사혼합보험 지급률도 1.5%p 상승한 40.6%를 나타냄.
- 수입보험료가 급증한 생존보험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21.8%p 하락한 29.4%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며 4.5%p 감소한 54.8%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0%p 하락한 13.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2%p, 소폭 하락한 10.0%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¹⁾	59.0	56.9	58.9	56.9	48.3	45.8	47.0	49.1
개인계	51.1	53.0	52.6	53.9	45.6	45.7	44.3	47.1
- 생존	58.9	51.2	56.1	44.1	30.1	31.8	29.4	32.8
- 사 망	53.2	56.7	53.3	55.0	56.9	54.8	58.5	56.3
- 생사혼합	45.0	39.1	43.3	65.3	44.0	43.8	40.6	47.3
- 변액	45.0	59.3	53.9	53.1	57.5	58.5	54.8	56.0
단체	98.5	143.2	124.6	113.9	127.7	46.2	105.7	78.4
사업비율	15.5	16.7	16.6	15.4	14.0	13.1	13.7	14.0
해지율 ²⁾	7.9	10.2	10.2	2.8	5.4	7.8	10.0	10.0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영업이익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보험료 적립금 확대로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한 7,260억 원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4,957	16,688	60,872	18,563	22,505	22,621	24,951	88,640
	투자영업	4,402	4,894	20,024	5,656	5,600	6,129	5,266	22,651
	영업외	902	961	3,664	984	1,000	1,018	1,037	4,039
	소 계	20,261	22,543	84,560	25,204	29,105	29,768	31,254	115,330
총비용	보험영업	11,756	12,397	46,700	14,023	13,958	14,107	15,057	57,144
	투자영업	258	348	3,308	1,049	699	1,420	217	3,385
	영업외	171	153	738	165	168	181	161	674
	소 계	12,186	12,898	50,746	15,236	14,825	15,708	15,435	61,203
수지차	보험영업	3,201	4,291	14,172	4,540	8,547	8,514	9,895	31,496
		(20.6)	(44.6)	(14.8)	(27.0)	(175.3)	(166.0)	(130.6)	(122.2)
	투자영업	4,144	4,546	16,717	4,608	4,901	4,709	5,049	19,266
		(2.3)	(-4.0)	(-0.1)	(9.6)	(28.2)	(13.6)	(11.1)	(15.2)
	영업외	730	808	2,926	820	832	837	876	3,365
	소 계	8,075	9,645	33,814	9,968	14,280	14,060	15,819	54,127
책임준비금전입		7,090	8,291	29,452	8,909	13,103	13,146	15,057	50,216
법인세		253	325	992	215	252	208	36	711
당기순이익		732	1,029	3,371	844	925	706	726	3,200
		(-21.2)	(6.6)	(-16.1)	(-22.6)	(78.3)	(-3.6)	(-29.5)	(-5.1)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보험영업이익은 일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130.6% 증가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감소하면서 11.1%의 증가를 나타냄.

〈부채 및 자본〉

■ FY2012 4/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하였으며, 총자본 또한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27.1% 증가함.

- 총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자산 평가손익 증가로 48.7% 증가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3/4	4/4
책임준비금	금액	293	300	309	352	366	379	394
	증가율	10.4	10.5	10.7	23.1	24.6	26.1	27.6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6	7	7	7	9	9	9
	증가율	-14.6	-4.0	14.3	19.2	54.1	34.1	29.6
기타부채	금액	12	13	13	14	14	14	15
	증가율	10.5	11.7	15.6	23.9	13.5	12.7	18.5
특별계정부채	금액	79	82	86	86	90	94	97
	증가율	1.1	1.5	5.0	4.0	13.5	14.4	12.0
부채총계	금액	391	402	415	460	478	496	515
	증가율	7.9	8.3	9.6	19.0	22.5	23.4	24.1
자본금	금액	9	9	9	9	9	9	9
	증가율	4.1	2.0	1.7	5.7	6.0	7.6	7.6
자본잉여금	금액	3	3	3	5	5	6	6
	증가율	-8.2	-9.5	-10.4	76.6	77.6	89.9	89.5
이익잉여금	금액	17	18	19	19	20	21	21
	증가율	21.3	18.9	18.0	15.3	16.9	15.3	1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0	12	13	13	17	17	19
	증가율	1.4	9.4	27.8	23.8	67.6	46.5	48.7
자본총계	금액	39	41	43	46	51	52	55
	증가율	8.5	8.8	13.3	18.3	31.0	27.2	27.1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429	443	458	505	529	548	570
	증가율	8.0	8.4	10.0	18.9	23.2	23.8	24.4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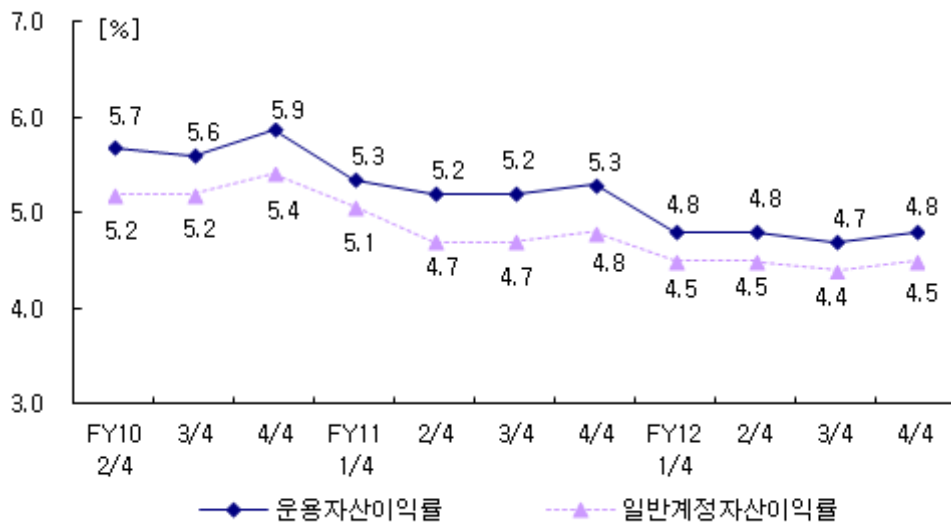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12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매도가능채권과 대출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0.3%p 하락한 4.8%와 4.5%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채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4.6%로 나타났고 대출채권 수익률도 0.5%p 하락한 6.9%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 수익률은 0.3%p 상승한 3.8%를 기록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0.5%, 대출채권 17.0%, 현금과 예금 3.6%, 부동산 3.0%이며, 유가증권에 속해 있는 매도가능채권의 비중은 43.5%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¹⁾²⁾³⁾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구성비 ¹⁾	이익률 ²⁾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8	100.0	4.5	100.0	4.5	100.0	4.4	100.0	4.5
운용자산 계	93.0	5.3	93.3	4.8	93.7	4.8	93.9	4.7	94.1	4.8
현금과예금	4.1	3.8	3.9	3.6	3.9	3.5	4.4	3.1	3.6	3.5
유가증권	66.3	4.8	68.1	4.4	69.1	4.4	69.0	4.3	70.5	4.3
○당기손익인식증권 ³⁾	1.6	2.6	2.2	2.4	2.5	5.2	2.4	5.0	3.2	4.5
- 주식	0.1	-8.0	0.1	-31.4	0.1	-2.2	0.1	-1.1	0.1	1.4
- 채권 등	0.7	4.1	0.8	4.5	0.8	8.3	0.6	7.9	0.7	7.4
- 수익증권	0.8	2.7	1.3	4.2	1.6	4.1	1.7	4.0	2.4	3.5
○매도가능증권	51.4	4.7	47.6	4.3	49.3	4.2	49.4	4.1	51.5	4.1
- 주식	5.3	1.9	4.7	0.3	4.8	-0.1	5.1	-0.4	5.0	0.3
- 채권 등	43.5	5.0	40.3	4.8	41.9	4.7	41.5	4.7	43.5	4.6
- 수익증권	2.5	5.8	2.6	2.5	2.6	3.4	2.8	3.4	3.0	3.5
○만기보유증권	12.5	5.4	17.0	5.2	15.9	5.2	15.8	5.1	14.2	5.3
- 채권 등	12.5	5.4	17.0	5.2	15.9	5.2	15.8	5.1	14.2	5.3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9	7.2	1.4	4.2	1.4	2.5	1.4	2.0	1.5	2.4
대출채권	18.9	7.4	18.1	6.9	17.6	7.0	17.4	6.9	17.0	6.9
부동산	3.7	3.5	3.3	3.6	3.2	3.8	3.1	3.8	3.0	3.8
비운용자산	7.0	-0.6	6.7	-0.9	6.3	0.0	6.1	0.2	5.9	0.1
총자산	100.0	4.1	100.0	2.8	100.0	4.3	100.0	4.2	100.0	4.3
일반계정	81.3	4.8	83.2	4.5	83.1	4.5	83.4	4.4	83.2	4.5
특별계정	18.7	0.9	16.8	-5.4	16.9	3.0	16.6	3.2	16.8	3.4
총자산 규모	4,582,041		5,052,803		5,291,873		5,478,271		5,698,366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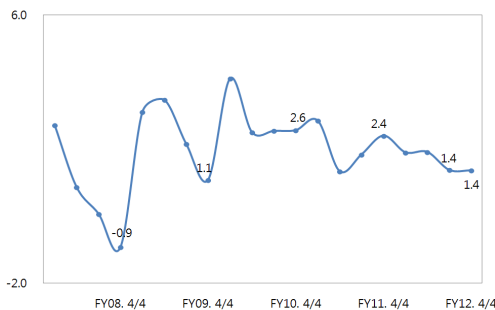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²⁾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한 반면 총자본은 27.1%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각각 3개의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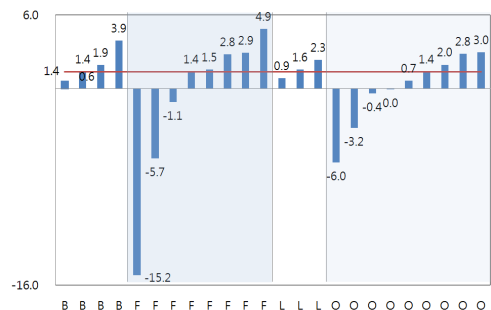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방카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대형사와 방카사가 전체 자본이익률을 상회함.

-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방카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1.8%를 나타냄.

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 외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게 나타나면서 전체 자본이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p, 1.7%p 급감한 1.1%, 0.9%를 나타내면서 전체 자본이익률 수준을 하회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1.4	2.2	7.5	1.7	1.9	1.2	1.5	6.4
중소형사	2.5	3.6	13.5	2.9	2.2	1.4	1.1	7.1
외국사	3.3	2.6	11.4	2.0	2.1	2.1	0.9	7.3
방카사 ³⁾	0.1	1.3	0.4	-0.2	-1.8	1.2	1.8	1.4
전체	1.8	2.4	8.4	1.9	1.9	1.4	1.4	6.6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HSBC,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을 분해해보면 자산회전율은 상승하고 매출이익률과 레버리지비율은 소폭 하락함.

-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6.5%를 나타냈고 레버리지비율은 0.1p 하락한 8.8배로 나타났으며, 매출이익률은 2.2%p 하락한 2.4%를 기록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회전율은 상승한 반면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은 하락하였으며, 외국사와 방카사의 경우에는 자산회전율과 레버리지비율, 매출이익률이 모두 하락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8.4	8.1	8.1	4.5	5.5	5.5	5.9	2.6	3.5
중소형사	12.5	12.2	12.1	8.2	8.4	8.7	2.9	1.4	1.0
외국사	7.2	6.8	6.9	6.6	6.1	6.3	5.6	5.0	2.1
방카사	12.5	12.4	12.4	12.4	7.6	8.1	2.1	1.3	1.8
전체	8.9	8.7	8.8	5.8	6.4	6.5	4.6	2.5	2.4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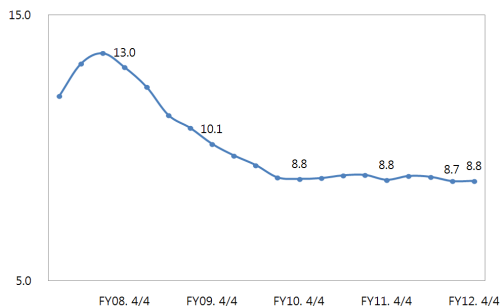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총자본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8.8배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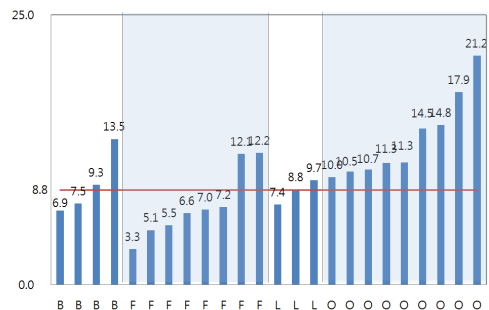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전년동기대비 자본증가율은 27.1%로 자산증가율 24.4%를 상회하였고, 이로 인해 레버리지비율은 하락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3〉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4.1	3.8	16.6	4.5
중소형사	75.7	5.2	96.8	8.3
외국사	10.8	3.0	18.2	4.7
방카사	22.0	4.8	34.3	8.1
전체	24.4	4.0	27.1	5.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회사그룹별로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8.7	8.4	11.0	8.4	8.3	8.1	8.1	12.3
중소형사	12.6	12.6	15.2	12.6	12.4	12.2	12.1	8.3
외국사	7.2	7.2	10.2	7.2	6.9	6.8	6.9	14.5
방카사	11.9	12.5	15.7	13.2	12.8	12.4	12.4	8.0
전체	9.0	8.9	10.8	8.9	8.9	8.7	8.8	11.4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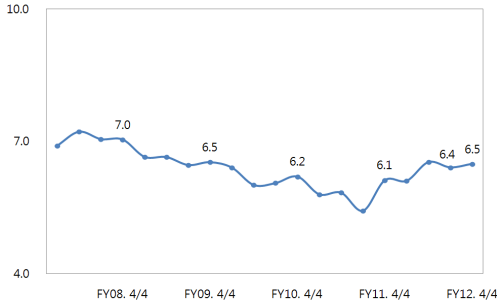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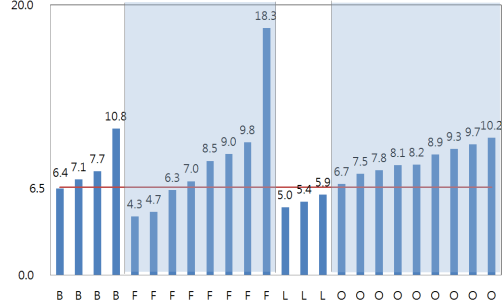
■ FY2012 4/4분기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0.7%p 상승한 6.5%를 기록함.

〈그림 7〉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회전율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보험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5.4%를 나타낸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0.2%p 하락한 1.1%를 기록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4.5	5.5	5.5	3.3	4.1	4.4	1.3	1.4	1.0
중소형사	8.2	8.4	8.7	6.8	7.1	7.4	1.5	1.3	1.3
외국사	6.6	6.1	6.3	5.2	4.8	5.0	1.3	1.3	1.2
방카사	12.4	7.6	8.1	11.2	6.4	7.0	1.2	1.3	1.1
전체	5.8	6.4	6.5	4.5	5.0	5.4	1.3	1.4	1.1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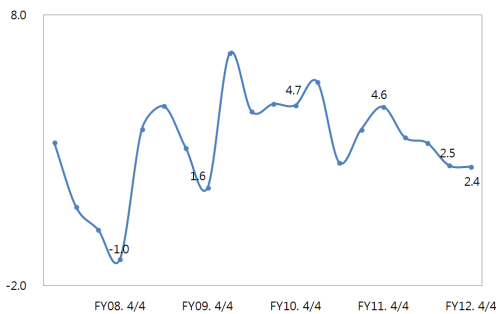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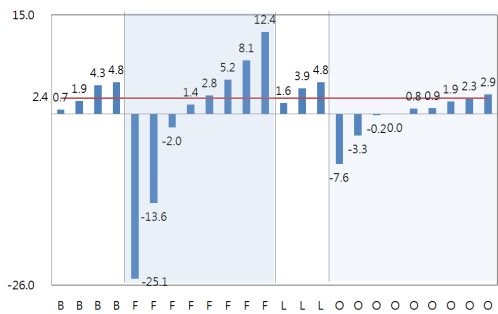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2%p 하락한 2.4%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률은 14.2%p 상승한 32.7%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4.2%p 하락한 16.7%를 나타냄.

〈그림 9〉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1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5.9	2.6	3.5	11.8	28.3	34.6	27.0	18.5	19.7
중소형사	2.9	1.4	1.0	24.3	37.2	35.2	14.6	12.8	12.3
외국사	5.6	5.0	2.1	13.0	11.7	15.0	18.7	17.7	18.5
방카사	0.9	1.3	1.8	57.9	37.8	44.0	9.2	15.4	13.2
전체	4.6	2.5	2.4	18.5	29.6	32.7	20.9	16.4	16.7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100,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2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저축성보험 판매 급증이 지속되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 등 타 판매채널 비중은 모두 하락함.
- FY2012 4/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농협생명보험 진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8.5%p 상승한 70.8%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각각 3.5%p, 1.1%p 하락한 19.9%, 5.6%를 기록함.
 - 임직원의 비중 또한 단체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3.7%p 감소한 3.6%를 나타냄.

〈표 17〉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임직원	7.3	21.3	5.3	2.6	6.9	3.6	4.3	4.5
설계사	23.4	24.7	19.3	19.6	23.9	19.9	23.1	21.0
대리점	6.7	7.1	5.4	5.3	8.3	5.6	6.7	6.3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62.3	46.6	69.9	72.5	60.8	70.8	65.8	68.1
기타	0.3	0.3	0.1	0.0	0.1	0.0	0.1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889	148,510	45,622	82,265	82,087	225,028	183,878	307,114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2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증가한 반면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719명 증가한 30,436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국내중소형사, 외국사 모두에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1,322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체설계사가 각각 820명, 502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 수는 상위3사와 외국사에서 각각 211명, 1,086명 감소한 반면 국내중소형사는 477명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706개, 56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762개가 감소한 7,693개를 나타냄.

〈표 18〉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7,339	27,340	27,963	29,065	29,586	29,717	30,436
설계사	150,161	152,294	153,189	156,149	157,738	156,152	154,830
- 전속	138,024	141,034	141,499	144,736	147,004	145,933	145,113
- 교차	12,137	11,260	11,690	11,413	10,734	10,219	9,717
대리점	9,511	9,089	8,965	8,981	8,865	8,455	7,693
- 개인	6,176	5,857	5,712	5,624	5,514	5,157	4,451
- 법인	3,335	3,232	3,253	3,357	3,351	3,298	3,242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역성장,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이 5.5%에 그친 16조 9,56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6% 증가한 16조 3,306억 원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6.8% 증가에 그친 10조 3,11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하면 3.2% 증가한 9조 9,641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퇴직연금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7.0% 증가한 1조 5,097억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인하, 할인형 상품³⁾ 판매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3.5% 감소한 3조 1,37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3.6% 감소한 3조 1,343억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시장 진입 등에 힘입은 화재 및 특종보험 고성장으로 13.5% 증가한 1조 9,981억 원을 나타냈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할 경우 2.2% 감소한 1조 7,225억 원을 기록함.
- FY2012 기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역성장으로 12.4% 증가한 68조 5,422억 원을 시현함.

■ FY2012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3.1% 증가한 156조 4,63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2.7% 증가한 153조 2,537억 원을 기록함.

3) 주행거리연동 특약, 블랙박스 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이 있음.

- 일반계정자산은 원수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2.9%(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2.5% 증가)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은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8.6% 늘어남.

〈표 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원수보험료	16.1	61.0	16.8	16.7	18.1	17.0	16.3	68.5
	(21.0)	(16.7)	(19.4)	(17.8)	(8.7)	(5.5)	(1.6)	(12.4)
장기손보	9.7	34.1	9.8	10.1	10.0	10.3	10.0	40.2
	(31.3)	(21.2)	(28.1)	(24.0)	(14.9)	(6.8)	(3.2)	(17.7)
연금부문 ²⁾	1.4	6.7	1.6	1.5	2.8	1.5	1.5	7.4
	(15.3)	(24.8)	(14.4)	(41.6)	(0.3)	(7.0)	(7.0)	(11.1)
자동차	3.3	13.0	3.3	3.2	3.2	3.1	3.1	12.8
	(1.1)	(5.1)	(2.0)	(-2.9)	(-1.6)	(-3.5)	(-3.6)	(-1.5)
일반손해	1.8	7.1	2.1	2.0	2.0	2.0	1.7	8.1
	(17.7)	(12.7)	(16.9)	(14.4)	(11.0)	(13.5)	(-2.2)	(13.9)
총자산 ³⁾	129.8	129.8	138.5	146.0	151.8	156.5	153.3	156.5
	(5.3)	(27.0)	(6.7)	(5.4)	(4.0)	(3.1)	(2.7)	(3.1)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부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2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저축성보험이 역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8% 증가에 그친 10조 3,11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3.2% 증가한 9조 9,641억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증가세(31.2%)는 유지되었으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60.2%)함에 따라 6.4% 감소한 3조 1,247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⁴⁾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각 17.8%, 15.2% 증가한 2조 5,782억 원, 1조 8,468억 원을 시현함.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할 경우 각각 8.6%, 19.6% 증가한 6,128억 원, 9,266억 원을 나타냈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하면 각각 0.1%, 5.1% 증가에 그침.
- FY2012 기준으로는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어 전년대비 17.7% 증가한 40조 1,896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되었음.

■ FY2012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50.1%나 감소한 7,616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권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로 여전히 금리 경쟁력이 존재하나 최근 3년 동안의 초회보험료 급증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FY2012 4/4분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60.2% 감소한 5,461억 원을 나타냄.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판매⁵⁾에 앞서서 가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각 51.3%, 96.4% 증가한 912억 원, 650억 원을 기록함.
-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와 전년동기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6.7%나 증가한 10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신규 가입 수요 감소로 25.0% 줄어든 259억 원을 시현함.
- FY2012 기준으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저성장하여 전년대비 9.9% 증가에 그친 3조 7,423억 원을 기록함.

4)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됨.

5)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4월부터 시작됨.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1,889	83,554	23,029	23,813	24,678	25,782	25,407	97,301	
		증가율	11.6	12.1	13.1	18.2	16.7	17.8	16.1	16.5	
	운전자	보험료	5,642	22,781	6,146	6,129	6,151	6,128	5,647	24,555	
		증가율	-1.3	1.1	6.9	7.3	8.3	8.6	0.1	7.8	
	재 물	보험료	7,749	28,993	9,315	9,392	9,456	9,266	8,147	37,429	
		증가율	30.3	33.1	48.7	26.2	25.5	19.6	5.1	29.1	
	질 병	보험료	16,033	62,490	16,426	16,927	17,665	18,468	18,468	69,485	
		증가율	8.6	10.4	7.6	9.3	12.4	15.2	15.2	11.2	
	저축성	보험료	33,372	97,465	31,437	32,186	29,689	31,247	29,747	124,559	
		증가율	102.7	55.8	75.8	53.4	17.7	-6.4	-10.9	27.8	
	통합형	보험료	11,752	45,417	11,926	12,072	12,047	12,151	12,151	48,196	
		증가율	8.8	6.2	7.7	7.9	5.7	3.4	3.4	6.1	
	자산 연계형	보험료	136	732	103	99	96	73	73	371	
		증가율	-43.0	-30.6	-53.6	-50.7	-44.9	-46.1	-46.1	-49.3	
소 계	보험료	96,572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99,641	401,896		
	증가율	31.3	21.2	28.1	24.0	14.9	6.8	3.2	17.7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602	1,976	562	579	682	912	886	2,735	
		증가율	9.3	-3.4	22.1	36.6	39.3	51.3	47.1	38.4	
	운전자	보험료	76	279	101	110	104	105	94	419	
		증가율	-62.0	-48.3	52.7	68.7	45.3	36.7	23.2	50.1	
	재 물	보험료	345	1,565	399	306	285	259	251	1,249	
		증가율	9.9	42.5	12.3	-31.7	-31.5	-25.0	-27.3	-20.2	
	질 병	보험료	331	1,150	302	377	498	650	650	1,828	
		증가율	-3.9	-3.9	-2.6	59.8	82.4	96.4	96.4	58.9	
	저축성	보험료	13,715	28,476	10,294	9,189	5,595	5,461	4,696	30,539	
		증가율	432.9	132.9	261.0	95.8	-22.5	-60.2	-65.8	7.2	
	통합형	보험료	198	603	153	142	130	230	230	653	
		증가율	94.6	47.5	49.7	-9.8	-11.2	15.9	15.9	8.3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2	0	0	0	0	0	0	
		증가율	-100.0	-70.5	-84.9	-69.7	-100.0	-	-	-99.2	
소 계	보험료	15,269	34,048	11,811	10,703	7,294	7,616	6,808	37,423		
	증가율	273.6	94.5	184.9	77.6	-15.3	-50.1	-55.4	9.9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1,286	81,578	22,467	23,234	23,995	24,870	24,521	94,566	
		증가율	11.7	12.6	12.9	17.8	16.1	16.8	15.2	15.9	
	운전자	보험료	5,566	22,502	6,046	6,019	6,047	6,023	5,553	24,136	
		증가율	0.9	2.3	6.4	6.6	7.9	8.2	-0.2	7.3	
	재 물	보험료	7,403	27,428	8,916	9,086	9,171	9,007	7,896	36,180	
		증가율	31.5	32.6	50.9	29.9	28.8	21.7	6.7	31.9	
	질 병	보험료	15,701	61,340	16,124	16,550	17,167	17,817	17,817	67,658	
		증가율	8.9	10.7	7.8	8.5	11.2	13.5	13.5	10.3	
	저축성	보험료	19,657	68,989	21,143	22,997	24,094	25,787	25,051	94,020	
		증가율	41.5	37.1	40.7	41.1	33.8	31.2	27.4	36.3	
	통합형	보험료	11,554	44,813	11,773	11,931	11,917	11,921	11,921	47,543	
		증가율	8.0	5.8	7.3	8.2	5.9	3.2	3.2	6.1	
	자산 연계형	보험료	136	734	103	99	96	73	73	371	
		증가율	-43.0	-30.9	-53.6	-50.7	-45.5	-46.1	-46.1	-49.5	
소 계	보험료	81,303	307,384	86,571	89,916	92,488	95,498	92,833	364,472		
	증가율	17.0	16.3	19.1	19.7	18.2	17.5	14.2	18.6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4/4분기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 해지율 감소와 상해, 운전자, 질병보험 해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높아진 12.5%를 기록함.

- 재물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3.3%p 낮아진 15.5%를 나타냈으며,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감소로 0.8%p 하락한 12.8%를 기록함.
- 상해, 운전자, 질병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더욱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각 1.4%p, 1.1%p, 1.3%p 상승한 11.9%, 12.2%, 12.7%를 기록함.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4/4
상 해	8.0	10.5	3.1	6.0	8.8	11.9
운전자	8.4	11.1	3.2	6.1	9.0	12.2
재 물	15.1	18.8	5.1	9.2	12.7	15.5
질 병	8.8	11.4	3.1	6.0	9.1	12.7
저축성	10.4	13.6	3.5	6.6	9.6	12.8
통합형	6.7	8.9	2.6	5.2	7.7	10.2
계	9.3	12.1	3.4	6.4	9.4	12.5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2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증가세 둔화와 퇴직연금 역성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에 그친 1조 5,097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⁶⁾ 등의 영향으로 13.8% 증가한 1조 628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으로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4,469억 원을 기록함.

6)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증가세 둔화와 퇴직연금 저성장으로 FY2011 증가율(24.8%)에 비하여 둔화된 11.1% 증가한 7조 4,337억 원을 기록함.

〈표 2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연금	보험료	9,145	9,343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증가율 ¹⁾	41.9	35.2	38.8	29.9	25.6	17.1	13.8	21.1
	구성비 ²⁾	32.6	66.2	51.2	60.2	70.1	38.0	70.4	55.8
퇴직 보험	보험료	92	224	835	1	6	2	0	9
	증가율	-97.7	102.3	-84.2	-99.8	48.5	-97.7	-100.0	-99.0
	구성비	0.3	1.6	1.2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18,857	4,547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증가율	26.6	-12.8	34.6	4.8	102.3	-7.4	-1.7	3.3
	구성비	67.1	32.2	47.5	39.8	29.9	62.0	29.6	44.2
합계	보험료	28,094	14,114	66,900	16,375	14,691	28,174	15,097	74,337
	증가율	11.2	15.3	24.8	14.4	41.6	0.3	7.0	1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2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당보험료 감소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3조 1,37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인하와 할인형 상품 증가 등으로 3.3% 줄어든 7,765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정률제 시행에 따른 자차 담보 감소세와 대물 담보 증가세 둔화 등으로 4.0% 감소한 2조 2,193억 원을 시현함.

○ FY2012 기준으로는 경기둔화 및 대당보험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12조 8,416억 원을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8,311	8,028	33,426	8,111	7,991	8,048	7,765	31,915
		-5.5	-6.0	-3.4	-4.6	-6.9	-3.2	-3.3	-4.5
종합 보험	대인 II	3,360	3,313	13,323	3,288	3,274	3,310	3,200	13,072
		2.9	3.2	3.2	1.3	-3.8	-1.5	-3.4	-1.9
	대물	9,857	9,970	38,342	10,280	10,259	10,450	10,335	41,325
		12.0	12.6	13.8	14.5	7.6	6.0	3.7	7.8
	자차	8,455	8,453	34,237	7,973	7,749	7,620	7,311	30,652
		-3.2	-6.5	3.2	-7.0	-11.5	-9.9	-13.5	-10.5
	자손	1,164	1,117	4,572	1,128	1,144	1,170	1,120	4,561
		2.4	-0.8	4.1	1.2	-2.8	0.5	0.3	-0.2
	무보험	265	258	1,074	254	250	250	227	982
		-8.5	-8.4	-5.7	-6.4	-10.3	-5.7	-12.0	-8.6
	소계	23,101	23,111	91,548	22,923	22,676	22,801	22,193	90,593
		3.9	2.7	7.3	3.3	-2.0	-1.3	-4.0	-1.0
외화표시		39	25	122	30	23	33	25	111
		14.3	23.9	19.2	9.9	-24.2	-14.2	-2.9	-8.9
이륜자동차 ²⁾		149	151	637	268	211	161	152	792
		7.9	17.9	12.1	54.6	28.6	8.0	0.7	24.2
기타 ³⁾		1,202	1,191	4,682	1,284	1,256	1,225	1,241	5,006
		33.1	27.0	31.8	18.1	4.5	1.8	4.2	6.9
합계		32,803	32,507	130,415	32,615	32,157	32,268	31,376	128,416
		2.2	1.1	5.1	2.0	-2.9	-1.6	-3.5	-1.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 가운데 자차 및 자손 담보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3.1%p 상승한 83.7%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기본 보험료 인하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83.0%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감소와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발생손해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2%p 높아진 84.3%를 나타냄.

- 특히, 자차 및 자손 담보의 경과보험료 감소 및 발생손해액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손해율이 각각 11.9%p, 8.3%p 상승한 78.7%, 98.6%를 기록함.

○ FY2012 상반기 정률제 도입 등으로 하락하였던 손해율이 하반기 대당보험료 감소 효과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FY2012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1.8%p 상승한 84.0%를 기록함.

〈표 24〉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90.5	81.3	81.3	82.6	86.5	95.4	83.0	86.9
종합보험	대인 II	91.2	88.1	88.7	101.8	82.9	91.0	87.7	90.9
	대물	93.2	88.7	89.8	85.4	87.6	97.2	86.9	89.3
	자차	70.4	66.8	73.7	59.6	72.3	83.7	78.7	73.3
	자손	91.0	90.3	80.1	73.0	77.9	92.1	98.6	85.4
	무보험	68.3	64.6	60.1	50.6	64.2	56.2	40.2	53.0
	소계	83.7	80.1	82.6	77.3	80.7	90.8	84.3	83.3
외화표시		87.8	54.9	75.0	71.2	104.8	88.6	74.5	84.7
이륜자동차 ²⁾		89.7	81.9	88.3	95.9	86.4	77.6	67.7	81.2
기타 ³⁾		81.6	79.9	80.4	65.3	81.0	92.2	80.1	79.8
합계		85.4	80.6	82.2	78.2	82.1	91.9	83.7	84.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되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2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과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1조 9,98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2.2% 감소한 1조 7,225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추가됨에 따라 23.2%나 증가한 808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하면 1.0% 감소한 649억 원을 나타냄.⁷⁾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적하보험이 감소한데다 해양종합보험⁸⁾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122.6%) 전체 36.1% 감소한 1,493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 및 보험료 조정 등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실적 둔화로 1.7% 감소한 4,013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 시 28.6%나 증가한 1조 2,249억 원을 기록한 반면, 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2.1% 증가에 그친 9,726억 원을 나타냄.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기술보험에 포함된 대부분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줄어들어, 전체 20.3% 감소한 523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확대 추세와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로 14.7% 증가한 3,742억 원을 기록함.
 - 기타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에 따라 135.9%나 증가한 3,65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하면 0.2% 감소한 1,545억 원을 시현함.
- FY2012 기준으로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에 힘입은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고성장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한 8조 773억 원을 나타냄.

7) FY2012 4/4분기 전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농협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임.

8) 해양종합보험은 유정 및 시추선 등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에 포함됨.

〈표 25〉 일반손해보험²⁾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화재	보험료	656	2,636	782	758	946	808	649	3,293
	증가율	-0.2	-0.9	25.3	26.7	24.8	23.2	-1.0	25.0
	구성비	3.7	3.7	3.8	3.8	4.6	4.0	3.8	4.1
해상	보험료	2,335	8,699	2,356	2,217	2,165	1,493	1,465	8,230
	증가율	35.2	12.7	-1.5	3.7	18.1	-36.1	-37.3	-5.4
	구성비	13.3	12.3	11.4	11.2	10.6	7.5	8.5	10.2
보증	보험료	4,083	15,172	4,081	3,810	3,913	4,013	3,968	15,816
	증가율	17.2	16.1	15.1	4.8	0.1	-1.7	-2.8	4.2
	구성비	23.2	21.4	19.8	19.2	19.2	20.1	23.0	19.6
특종	보험료	9,525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9,726	48,557
	증가율	12.5	11.1	18.9	15.5	9.4	28.6	2.1	17.8
	구성비	54.1	58.2	60.1	59.9	59.1	61.3	56.5	60.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007	3,164	997	1,147	1,314	1,418	1,418	4,876
	증가율	61.6	36.1	56.6	72.1	53.8	40.8	40.8	54.1
	구성비	5.7	4.5	4.8	5.8	6.4	7.1	8.2	6.0
합계	보험료	17,606	70,901	20,593	19,798	20,401	19,981	17,225	80,773
	증가율	17.7	12.7	16.9	14.4	11.0	13.5	-2.2	13.9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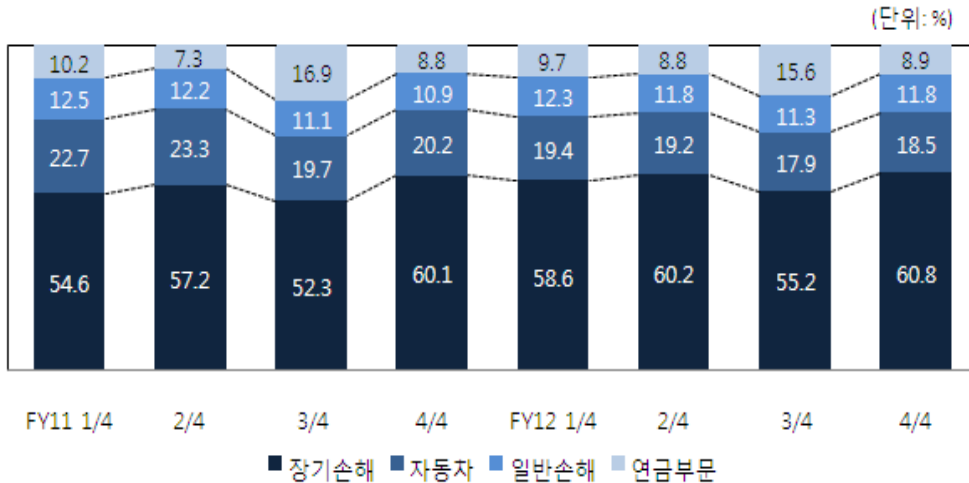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2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자동차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된 반면,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연금부문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자동차보험 비중은 기본 보험료 인하 등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3.5%)으로 1.7%p 축소된 18.5%를 나타냄.
- 반면,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고성장에 힘입은 양호한 성장세(13.5%)로 0.9%p 확대된 11.8%를 기록함.
- 한편,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고성장세 둔화로 비중이 0.7%p 증가에 그친 60.8%를 기록

하였으며, 연금부문 비중도 퇴직연금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과 0.1%p 증가한 8.9%를 나타냄.

〈그림 11〉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농협손해보험의 시장 진입으로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상위 4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67 감소한 0.1425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1.3%에 그친데다 국내 중소형사 실적에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됨에 따라 2.8%p 축소된 69.4%를 시현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으로 20.5%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3.3%p 확대된 26.2%를 나타냄.
- 전업사 및 외국사의 경우 마이너스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점유율이 각각 0.2%p, 0.3%p 낮아진 2.3%, 2.1%를 기록함.
- FY2012 기준으로도 국내 중소형사 실적에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53 감소한 0.1448을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상위 4사	72.2	71.7	69.8	70.1	70.7	69.4	72.0	70.0
국내 중소형사 ²⁾	22.9	23.3	25.5	25.4	25.0	26.2	23.3	25.5
전업사	2.5	2.5	2.4	2.3	2.2	2.3	2.4	2.3
외국사	2.4	2.6	2.2	2.3	2.1	2.1	2.2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3	2.5	2.1	2.2	2.0	2.1	2.2	2.1
허핀달지수 ³⁾	0.1492	0.1501	0.1434	0.1473	0.1465	0.1425	0.1521	0.1448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국내 중소형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3)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화재보험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81.6%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발생손해액 증가 등으로 3.1%p 악화된 83.7%를 나타냄.

○ 화재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가 발생손해액 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각 6.5%p, 1.4%p 개선된 56.1%, 83.2%를 기록함.

○ FY2012 기준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0.5%p 상승한 81.7%를 기록함.

■ FY2012 4/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2.2%p 높아진 21.1%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순사업비가 증가하여 3.2%p 높아진 19.9%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저성장세로 순사업비와 보유보험료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순사업비 감소율(-5.5%)이 보유보험료 감소율(-3.1%)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0.5%p 하락한 21.4%를 기록함.

- FY2012 기준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대비 1.1%p 높아진 19.5%를 나타냄.

■ FY2012 4/4분기 합산비율은 사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0%p 상승한 102.7%를 나타냄.

- FY2012 기준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1.6%p 높아진 101.2%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3.2	84.6	83.1	84.3	84.5	82.9	83.2	83.7
	자동차보험	85.4	80.6	82.2	78.2	82.1	91.9	83.7	84.0
	화재보험	66.3	62.6	59.0	59.1	68.2	52.7	56.1	59.2
	해상보험	63.5	60.2	57.2	64.3	49.7	56.1	77.8	61.5
	보증보험	65.0	67.5	55.0	61.0	68.6	48.1	72.3	62.3
	특종보험	70.9	69.6	68.0	61.1	79.8	72.1	69.3	70.6
	해외원보험	53.8	55.5	53.3	53.6	55.7	54.5	67.6	58.4
	해외수재보험	112.1	131.0	95.0	65.5	57.3	47.4	65.6	58.9
	전체	82.7	82.8	81.2	80.4	82.4	82.3	81.6	81.7
사업비율		18.1	18.9	18.4	18.2	18.7	20.0	21.1	19.5
합산비율		100.8	101.7	99.6	98.6	101.1	102.3	102.7	101.2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감안한 재무손해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보험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한 4,462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역성장과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둔화 등으로 보험영업수익이 5.5% 증가에 그친데다, 보험환급금과 순사업비 등 보험영업비용도 6.0% 증가함에 따라 6,180억 원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과 금융자산처분이익이 증가하여 투자영업수익이 확대됨에 따라 11.1% 증가한 1조 2,128억 원 흑자를 기록함.

■ FY2012 4/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⁹⁾의 당기순이익(B)은 3,500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보험영업수지 악화로 -21.2%를 기록함.

○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과 18개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B)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FY2011 4/4분기 적자를 기록하였던 재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 실적이 FY2012 4/4분기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FY2011 4/4분기 대부분 재보험회사들은 태국 홍수로 인한 손실이 추가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

9) 본고의 손해보험회사 수익성(자본이익률 등)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사를 기준으로 함(106p 참조).

〈표 28〉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4,358	15,349	56,229	15,606	15,971	15,915	16,189	63,681
	투자영업	1,158	1,342	5,584	1,489	1,588	1,773	1,588	6,438
	기타	708	367	1,574	493	288	666	227	1,674
	소계	16,224	17,058	63,388	17,588	17,847	18,354	18,004	71,793
총비용	보험영업	14,613	15,853	56,795	15,621	16,354	16,457	16,807	65,237
	투자영업	155	262	1,529	377	316	581	375	1,649
	기타	752	407	1,705	523	315	721	233	1,793
	소계	15,520	16,522	60,030	16,520	16,985	17,760	17,415	68,679
수지차	보험영업	-255	-504	-566	-15	-382	-542	-618	-1,556
	투자영업	1,003	1,080	4,055	1,113	1,272	1,192	1,213	4,789
	기타	-44	-40	-131	-30	- 27	-56	-6	-119
	소계	704	536	3,358	1,068	862	594	589	3,114
법인세		232	165	906	251	176	156	142	726
당기순이익(A) ³⁾		472 (80.4)	371 (-24.2)	2,452 (20.7)	817 (-15.2)	686 (6.1)	438 (-7.1)	446 (21.9)	2,388 (-2.4)
당기순이익(B) ⁴⁾		368 (217.7)	444 (16.4)	1,994 (79.0)	644 (-10.7)	554 (20.2)	313 (-14.9)	350 (-21.2)	1,861 (-6.7)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총부채와 총자본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5 % 증가한 156조 4,632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이 21.0%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0.9% 늘어난 132조 8,944억 원을 시현함.
- 총자본은 이익잉여금(14.0%)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51.4%)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23조 5,687억 원을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2/4	3/4	4/4	1/4	2/4	3/4	4/4
책임준비금	금액	85.6	90.2	95.6	102.4	108.1	111.9	115.6
	증가율 ¹⁾	30.2	30.5	32.5	26.2	26.3	24.0	21.0
기타부채	금액	8.8	9.2	9.4	10.4	10.2	11.2	11.0
	증가율	19.6	23.0	21.2	7.9	15.9	20.9	17.5
특별계정부채	금액	3.9	4.9	5.0	5.4	5.6	6.3	6.3
	증가율	13.8	27.9	34.9	28.0	44.0	28.7	24.8
부채총계	금액	98.3	104.4	110.0	118.2	123.9	129.4	132.9
	증가율	22.4	23.8	25.6	24.4	26.0	24.0	20.9
자본금	금액	2.2	2.2	2.2	2.2	2.2	2.1	2.1
	증가율	-32.1	-33.5	-31.6	-1.0	-2.1	-4.7	-5.1
자본잉여금	금액	1.5	1.5	1.5	1.9	1.8	1.9	1.9
	증가율	2.7	1.9	2.2	33.9	22.8	30.1	24.6
이익잉여금	금액	11.8	12.3	12.6	12.8	13.6	14.1	14.4
	증가율	73.5	73.9	67.0	11.5	14.8	14.8	14.0
자본조정	금액	-0.3	-0.3	-0.2	-0.2	-0.6	-0.6	-0.6
	증가율	-38.6	-32.4	-61.5	-17.2	104.7	87.1	148.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0	3.3	3.8	3.7	5.1	4.9	5.7
	증가율	-4.3	1.5	25.7	21.3	71.8	45.6	51.4
자본총계	금액	18.2	19.0	19.9	20.4	22.1	22.4	23.6
	증가율	28.5	29.3	35.2	13.8	21.3	18.0	18.3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116.5	123.4	129.8	138.6	146.0	151.8	156.5
	증가율	23.3	24.6	27.0	22.8	25.3	23.1	20.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을 비롯한 대부분 자산의 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낮아진 4.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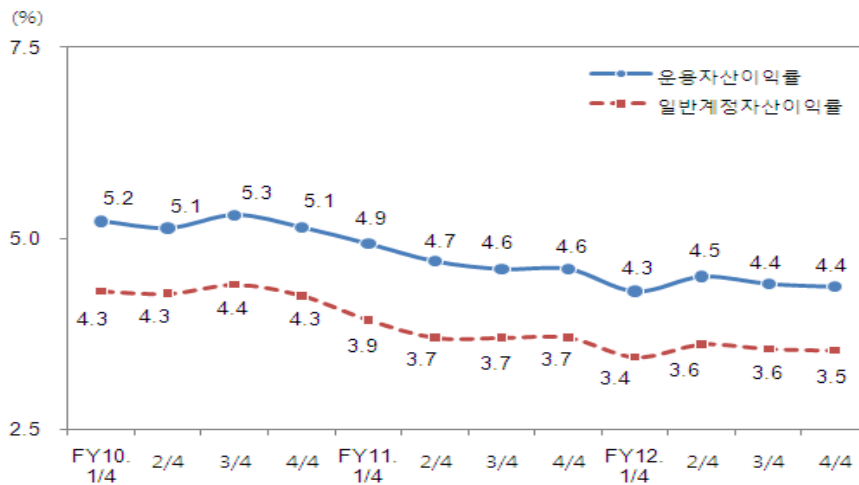
○ 유가증권 이익률은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비중이 큰 매도가능증권 이익률이 하락하여 전체 0.3%p 하락한 4.4%를 나타냄.

-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 부동산 이익률은 각각 0.4%p, 0.4%p, 0.3%p 하락한 3.2%, 5.4%, 1.0%를 기록함.

■ FY2012 4/4분기 일반계정 기준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4.3%, 대출채권 18.7%, 현금과 예금 4.7%, 부동산 4.3% 순으로 나타남.¹⁰⁾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p, 0.2%p 확대된 반면,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1.6%p, 0.7%p 축소됨.
- 특히, 유가증권 비중은 FY2011 3/4분기(49.9%)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부동산 비중은 FY2009 1/4분기(6.7%) 이후 감소세가 계속됨.

〈그림 12〉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¹⁾²⁾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7	100.0	3.4	100.0	3.6	100.0	3.6	100.0	3.5
운용자산 계	80.7	4.6	80.7	4.3	80.9	4.5	81.5	4.4	81.9	4.4
현금과예금	6.3	3.6	6.8	3.8	5.9	3.6	5.3	2.8	4.7	3.2
유가증권	51.0	4.7	51.1	4.1	52.4	4.5	53.6	4.5	54.3	4.4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7	2.1	3.3	3.3	3.5	5.8	3.5	4.7	4.4	4.1
- 주식	0.2	-17.1	0.1	-21.3	0.1	11.3	0.1	6.3	0.1	6.3
- 채권 등	2.1	5.0	2.0	4.9	2.1	6.7	2.0	5.4	2.2	5.2
- 수익증권	1.4	2.1	1.3	3.6	1.3	3.3	1.3	3.1	2.1	2.2
○ 매도가능증권	42.7	4.9	42.4	4.2	43.7	4.5	44.9	4.5	45.4	4.5
- 주식	4.5	2.9	4.2	-0.3	4.2	0.3	4.4	0.5	4.0	-0.6
- 채권 등	35.0	5.3	34.7	4.9	35.8	5.2	36.6	5.2	37.7	5.2
- 수익증권	3.2	3.6	3.5	3.4	3.7	2.6	3.8	3.0	3.7	3.4
○ 만기보유증권	3.0	5.5	3.8	5.4	3.7	5.4	3.9	5.3	2.9	6.1
- 채권 등	3.0	5.5	3.8	5.4	3.7	5.4	3.9	5.3	2.9	6.1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재종속기업투자주식	1.5	2.7	1.5	-0.2	1.5	0.9	1.4	1.4	1.6	0.3
대출채권	18.5	5.8	18.1	5.8	18.0	5.7	18.2	5.6	18.7	5.4
부동산	5.0	1.3	4.8	1.3	4.5	0.9	4.4	1.0	4.3	1.0
비운용자산	19.3	0.0	19.3	-0.1	19.1	-0.1	18.5	0.0	18.1	0.0
총자산	100.0	3.5	100.0	3.3	100.0	3.4	100.0	3.4	100.0	3.4
일반계정	96.2	3.7	96.3	3.4	96.2	3.6	96.2	3.6	96.0	3.5
특별계정	3.8	0.0	3.7	0.0	3.8	0.0	3.8	0.0	4.0	0.0
총자산 규모	1,298,013		1,385,178		1,459,065		1,517,939		1,564,632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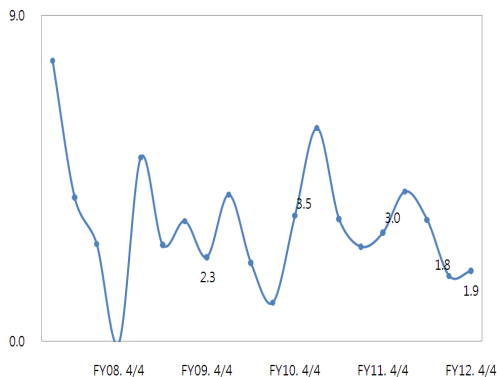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¹⁾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1.9%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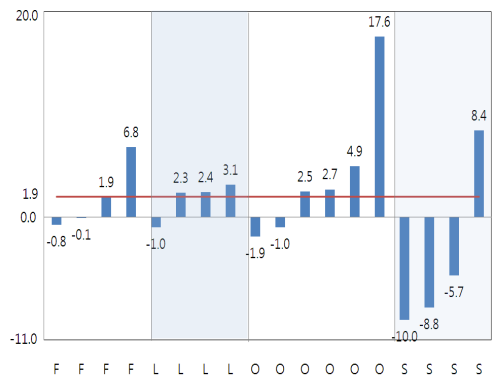
-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1.2%나 감소한데다 총자본이 21.2% 증가하여 자본이익률이 하락함.¹²⁾
- 대형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이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업사는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으로 대부분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그림 1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1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12)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이므로 앞서 언급된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21.9%) 및 총자본(18.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차이가 있음.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로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1.4%p 낮아진 2.2%를 기록함.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FY2011 4/4분기 낮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1.5%p, 0.8%p, 0.2%p 상승한 1.1%, 1.3%, -0.4%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²⁾	1/4 ³⁾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2.7	3.6	17.6	4.3	3.4	2.3	2.2	12.6
중소형사	2.8	-0.4	9.9	3.4	3.4	0.7	1.1	8.7
외국사	3.6	0.5	20.9	2.6	5.8	1.3	1.3	11.7
전업사	-2.4	-0.6	4.2	5.4	-0.9	-10.2	-0.4	-6.0
전체	2.6	3.0	16.3	4.2	3.4	1.8	1.9	11.6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본이익률은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7.4배를 나타낸 반면,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각각 2.0%p, 0.7%p 하락한 12.1%, 2.2%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하락하였으나 대형사와 외국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여 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함.
-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보험영업 적자 확대 및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대부분 그룹에서 하락하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하락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6.5	6.7	6.7	13.8	12.2	11.9	4.0	2.8	2.7
중소형사	13.3	12.9	12.8	14.4	13.3	12.3	0.0	0.4	0.7
외국사	2.4	2.4	2.5	23.0	23.4	22.7	0.9	2.4	2.3
전업사	4.9	4.7	4.8	17.4	17.5	17.1	-0.7	-12.5	-0.5
전체	7.3	7.4	7.4	14.1	12.6	12.1	2.9	1.9	2.2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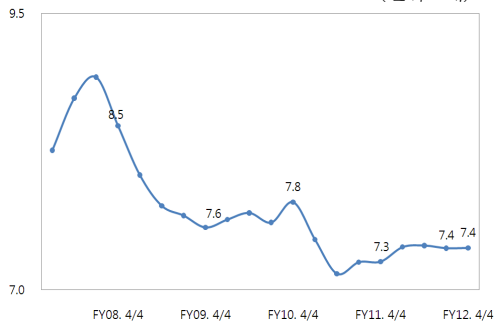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7.4배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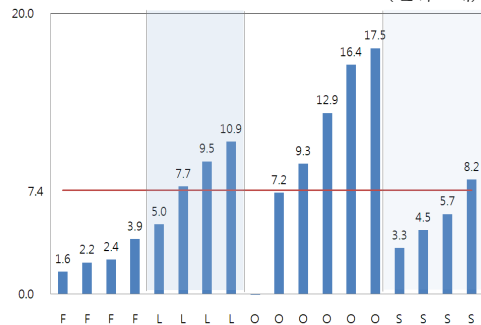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부분 중소형사와 대형사들이 산업평균수준인 7.4배를 상회한 반면, 외국사와 전업사들은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1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3〉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¹⁾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9.3	2.8	18.1	5.8
중소형사	33.8	5.2	52.0	8.0
외국사	13.4	6.6	7.1	1.0
전업사	-2.2	-1.4	-1.6	0.5
전체	22.1	3.3	21.2	5.9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사와 외국사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사와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외국사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여 각각 0.2p, 0.1p 상승한 6.7배, 2.5배를 나타냄.
- 중소기업사와 전업사 레버리지비율은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각각 1.2p, 0.1p 하락한 12.8배, 4.8배를 기록함.
- FY2012 기준으로는 대형사, 중소기업사, 외국사 레버리지비율이 각각 0.2p, 1.0p, 0.5p 하락한 반면, 전업사는 0.1p 상승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¹⁾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6.6	6.5	7.1	6.7	6.7	6.7	6.7	6.9
중소형사	13.4	14.0	14.7	13.9	13.2	12.9	12.8	13.7
외국사	2.4	2.4	3.0	2.4	2.4	2.4	2.5	2.5
전업사	4.9	4.9	4.7	4.6	4.5	4.7	4.8	4.8
전체	7.3	7.3	7.9	7.4	7.4	7.4	7.4	7.6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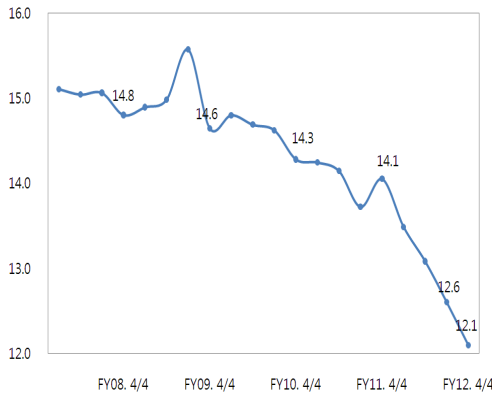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수익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0%p 하락한 12.1%를 기록하였으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일부 외국사 및 전업사 자산회전율은 자산 규모가 작아 산업평균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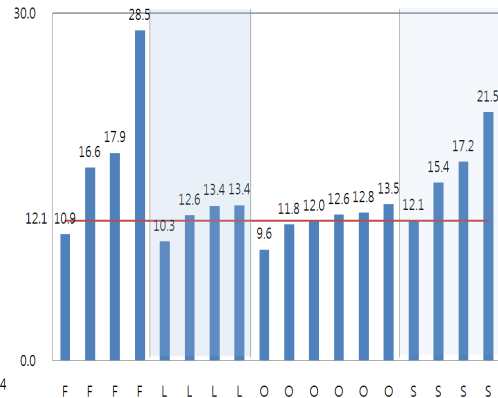
〈그림 17〉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1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은 보험영업수익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낮아 전년동기대비 1.9%p 하락한 11.0%를 시현하였으며, 투자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1.1%를 기록함.

〈표 35〉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회전율 ²⁾			투자영업회전율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13.8	12.2	11.9	12.7	10.9	10.8	1.1	1.3	1.1
중소형사	14.4	13.3	12.3	13.3	12.0	11.3	1.1	1.2	1.0
외국사	23.0	23.4	22.7	22.3	22.7	22.1	0.7	0.6	0.6
전업사	17.4	17.5	17.1	16.6	16.8	16.4	0.8	0.8	0.7
전체	14.1	12.6	12.1	12.9	11.3	11.0	1.1	1.3	1.1

주 :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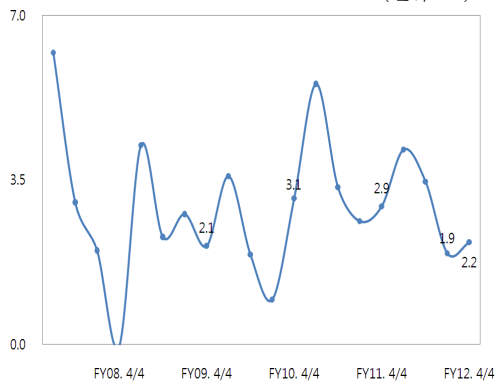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2.2%로 나타났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3%p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매출이익률 하락은 영업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다수의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가 음(-)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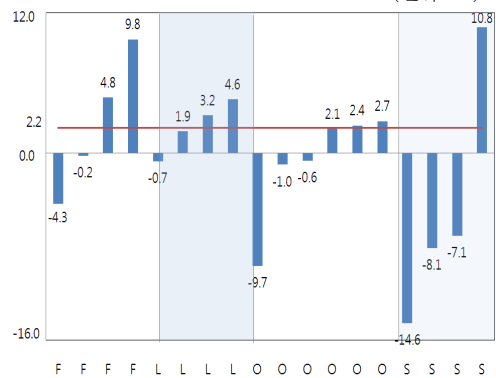
〈그림 19〉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2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한 -3.8%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률은 FY2011 4/4분기와 동일한 6.7%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FY2011 4/4	FY2012 3/4	FY2012 4/4
대형사	4.0	2.8	2.7	-1.5	-3.2	-3.2	7.0	7.3	6.9
중소형사	0.0	0.4	0.7	-5.4	-5.8	-6.0	5.9	6.7	6.8
외국사	0.9	2.4	2.3	-0.7	-0.2	3.7	2.8	2.5	2.0
전업사	-0.7	-12.5	-0.5	-4.7	-14.4	-3.8	4.1	3.7	2.8
전체	2.9	1.9	2.2	-2.4	-4.0	-3.8	6.7	7.0	6.7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2 4/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 반면, 임직원 채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한 17.2%를 기록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와 주요 판매 상품인 퇴직연금 부진 등으로 0.3%p 감소한 12.8%를 기록하였으며, 대리점 채널 비중도 방카슈랑스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1.9%p 감소한 38.5%를 나타냄.
- FY2012 기준으로는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전년대비 3.0%p 확대된 12.6%를 나타냈으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채널 비중은 각각 0.9%p, 1.0%p, 1.0%p 감소한 15.0%, 30.1%, 41.5%를 기록함.

〈표 3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4/4	연간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연간 (농협포함)
임직원	21,138	97,115	24,396	22,518	34,274	21,754	21,346	102,941
	13.1	15.9	14.5	13.5	19.0	12.8	13.1	15.0
설계사	49,012	189,640	49,886	52,119	52,267	52,017	51,845	206,290
	30.5	31.1	29.7	31.2	28.9	30.7	31.7	30.1
대리점	64,971	259,195	71,963	71,767	75,279	65,241	65,240	284,249
	40.4	42.5	42.8	42.9	41.7	38.5	39.9	41.5
중개사	930	4,424	1,113	1,206	1,421	1,063	1,063	4,803
	0.6	0.7	0.7	0.7	0.8	0.6	0.7	0.7
방카슈랑스	24,416	58,327	20,458	19,476	17,189	29,169	23,543	86,293
	15.2	9.6	12.2	11.6	9.5	17.2	14.4	12.6
공동인수	333	946	148	178	196	324	319	846
	0.2	0.2	0.1	0.1	0.1	0.2	0.2	0.1
전체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80,625	169,568	163,357	685,4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 기준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2 4/4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400명 늘어난 3만 2,838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상위 4사¹³⁾를 중심으로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줄어들어 2,142명 감소한 16만 8,023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의 경우 법인대리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대리점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전체 1,314개 감소한 3만 7,643개를 기록함.

13)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의미함.

〈표 3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농협포함)	2/4 (농협포함)	3/4 (농협포함)	4/4 (농협포함)	4/4 (농협제외)
임직원	30,470	31,003	31,816	32,464	32,438	32,838	32,337
설계사	161,441	161,237	167,101	168,545	170,165	168,023	166,824
- 전속	87,893	88,179	92,179	93,400	95,017	93,167	93,077
- 교차	73,548	73,058	74,922	75,145	75,148	74,856	73,747
대리점	40,543	39,818	39,425	38,857	38,957	37,643	37,581
- 개인	28,670	27,844	27,445	26,929	26,399	24,419	24,392
- 법인	11,873	11,974	11,980	11,928	12,558	13,224	13,189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3.4	3.6	3.3	2.8	2.4	1.6	1.5	1.5
경상수지	5,374	7,894	11,394	2,560	11,189	14,562	14,828	9,972
수출	142,605	141,253	140,370	134,846	140,130	133,125	139,768	135,398
수입	134,298	134,957	131,209	133,671	130,431	125,652	129,831	129,679
실업률	3.4	3.1	2.9	3.8	3.3	3.0	2.8	3.6
금리	국고채(3년)	3.68	3.60	3.41	3.45	3.39	2.88	2.81
	회사채(3년)	4.46	4.34	4.26	4.28	4.04	3.44	3.31
소비자물가지수	103.6	104.7	104.9	105.9	106.1	106.4	106.7	107.4
환율	원/달러	1,083.9	1,083.0	1,144.8	1,131.5	1,151.8	1,133.5	1,090.9
	원/엔화	1,327.0	1,392.7	1,479.7	1,427.9	1,436.9	1,441.2	1,346.1
KOSPI	2116.55	1936.81	1849.30	1972.55	1910.29	1902.32	1940.24	1985.40
외환보유고	304,485	303,384	306,402	315,952	312,378	322,015	326,968	327,408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부록 표 I -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17,097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
- 생보	89,732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
수입보험료	206,953	236,899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
지급보험금	117,221	139,863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
- 손보	27,364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
원수보험료	141,973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
원수손해액	114,609	138,455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
은행	242,881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 일반 ²⁾	197,704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 신탁	45,177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증권 ³⁾	34,901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자산운용 ⁴⁾	80,566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종금 ⁵⁾	-2,093	-52,656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RP매도+CMA

4) 채권형+MMF+혼합형+주식형+기타

5) 발행어음+CMA예탁금+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43,773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증가율	-1.2	16.1	5.0	42.6	107.5	108.6	88.9	87.6
	구성비	18.5	23.1	20.4	23.8	31.8	29.1	31.2	29.2
사망	보험료	71,772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증가율	-0.2	0.8	0.0	6.8	6.5	7.6	8.8	7.4
	구성비	30.3	32.2	32.7	31.1	27.1	24.6	25.1	26.7
생사 혼합	보험료	29,406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증가율	7.4	29.0	16.3	68.5	91.7	79.9	83.3	81.1
	구성비	12.4	16.6	13.9	18.8	19.4	16.9	21.7	19.2
변액 보험	보험료	52,149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증가율	3.1	0.3	9.7	-1.2	-5.4	1.3	4.1	-0.3
	구성비	22.0	23.7	24.2	21.3	18.4	16.9	17.7	18.4
개인계	보험료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증가율	1.5	8.2	5.9	20.9	37.5	39.1	39.9	34.6
	구성비	83.2	95.6	91.3	95.1	96.7	87.5	95.6	93.6
단체	보험료	39,798	9,831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증가율	1.4	-31.0	5.3	-32.0	1.5	-1.8	40.1	-3.1
	구성비	16.8	4.4	8.7	4.9	3.3	12.5	4.4	6.4
합계	보험료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증가율	1.5	5.6	5.8	16.5	35.9	32.3	39.9	3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5,789	26,428	100,720	25,718	26,885	28,993	28,657	110,254
	증가율	-4.9	1.1	5.7	15.3	2.7	12.4	8.4	9.5
	지급률	58.9	51.2	56.1	44.1	30.1	31.8	29.4	32.8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38,191	40,956	153,111	42,030	43,438	42,291	45,951	173,710
	증가율	4.0	8.2	4.0	16.7	14.5	10.7	12.2	13.5
	지급률	53.2	56.7	53.3	55.0	56.9	54.8	58.5	56.3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3,229	14,533	53,032	30,094	24,049	23,177	27,628	104,948
	증가율	-29.6	-2.3	-8.9	145.7	84.7	75.2	90.1	97.9
	지급률	45.0	39.1	43.3	65.3	44.0	43.8	40.6	47.3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3,464	31,495	114,772	27,824	29,795	30,903	30,318	118,839
	증가율	-40.2	-11.4	-11.3	-17.0	13.4	31.7	-3.7	3.5
	지급률	45.0	59.3	53.9	53.1	57.5	58.5	54.8	56.0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00,672	113,413	421,635	125,666	124,167	125,365	132,553	507,751
	증가율	-17.4	-0.9	-2.0	20.7	20.0	24.5	16.9	20.4
	지급률	51.1	53.0	52.6	53.9	45.6	45.7	44.3	47.1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39,190	14,077	95,315	13,814	11,716	18,069	14,560	58,159
	증가율	-8.7	-57.1	-10.9	-51.1	-15.0	-53.9	3.4	-39.0
	지급률	98.5	143.2	124.6	113.9	127.7	46.2	105.7	78.4
전체	지급보험금	139,863	127,490	516,95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565,911
	증가율	-15.2	-13.4	-3.8	5.4	15.9	2.6	15.4	9.5
	지급률	59.0	56.9	58.9	56.9	48.3	45.8	47.0	49.1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8,827	9,168	35,935	9,077	9,970	10,157	10,399	39,603
	증가율	5.9	2.2	9.1	3.1	9.1	15.1	13.4	10.2
	사업비율	20.2	17.7	20.0	15.6	11.2	11.1	10.7	11.8
사망 보험	사업비	20,788	20,939	81,056	21,511	22,634	23,625	25,280	93,050
	증가율	14.3	2.3	7.2	13.1	11.4	13.6	20.7	14.8
	사업비율	29.0	29.0	28.2	28.2	29.7	30.6	32.2	30.2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878	6,216	24,299	5,972	5,678	6,101	5,947	23,698
	증가율	2.3	-0.2	11.2	-1.4	-7.6	3.8	-4.3	-2.5
	사업비율	20.0	16.7	19.9	13.0	10.4	11.5	8.7	10.7
개인 보험계	사업비	35,493	36,324	141,291	36,590	38,253	39,882	41,626	156,351
	증가율	10.0	1.9	8.3	8.0	7.5	12.4	14.6	10.7
	사업비율	18.0	17.0	17.6	15.7	14.1	14.5	13.9	14.5
단체 보험계	사업비	1,209	1,121	4,362	1,117	1,213	1,136	1,221	4,687
	증가율	26.9	-7.5	3.4	14.1	15.3	-6.0	8.9	7.5
	사업비율	3.0	11.4	5.7	9.2	13.2	2.9	8.9	6.3
전체	사업비	36,702	37,445	145,652	37,707	39,466	41,018	42,847	161,038
	증가율	10.5	1.5	8.2	8.2	7.7	11.8	14.4	10.6
	사업비율	15.5	16.7	16.6	15.4	14.0	13.1	13.7	14.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758	656	2,636	782	758	946	808	3,293
	증가율 ³⁾	-2.7	-0.2	-0.9	25.3	26.7	24.8	23.2	25.0
	구성비	0.5	0.4	0.4	0.5	0.5	0.5	0.5	0.5
해상	보험료	1,833	2,335	8,699	2,356	2,217	2,165	1,493	8,230
	증가율	-5.5	35.2	12.7	-1.5	3.7	18.1	-36.1	-5.4
	구성비	1.1	1.5	1.4	1.4	1.3	1.2	0.9	1.2
자동차	보험료	32,803	32,507	130,415	32,615	32,157	32,268	31,376	128,416
	증가율	2.2	1.1	5.1	2.0	-2.9	-1.6	-3.5	-1.5
	구성비	19.7	20.2	21.4	19.4	19.2	17.9	18.5	18.7
보증	보험료	3,908	4,083	15,172	4,081	3,810	3,913	4,013	15,816
	증가율	14.4	17.2	16.1	15.1	4.8	0.1	-1.7	4.2
	구성비	2.4	2.5	2.5	2.4	2.3	2.2	2.4	2.3
특종	보험료	11,026	9,525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48,557
	증가율	10.8	12.5	11.1	18.9	15.5	9.4	28.6	17.8
	구성비	6.6	5.9	6.8	7.4	7.1	6.7	7.2	7.1
해외 원보험	보험료	854	1,007	3,164	997	1,147	1,314	1,418	4,876
	증가율	21.8	61.6	36.1	56.6	72.1	53.8	40.8	54.1
	구성비	0.5	0.6	0.5	0.6	0.7	0.7	0.8	0.7
장기 손해	보험료	86,877	96,572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401,896
	증가율	20.4	31.3	21.2	28.1	24.0	14.9	6.8	17.7
	구성비	52.3	60.1	56.0	58.6	60.2	55.2	60.8	58.6
개인 연금	보험료	9,145	9,343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증가율	41.9	35.2	38.8	29.9	25.6	17.1	13.8	21.1
	구성비	5.5	5.8	5.6	5.9	6.2	5.9	6.3	6.1
퇴직 보험	보험료	92	224	835	1	6	2	0	9
	증가율	-97.7	102.3	-84.2	-99.8	48.5	-97.7	-100.0	-99.0
	구성비	0.1	0.1	0.1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18,857	4,547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증가율	26.6	-12.8	34.6	4.8	102.3	-7.4	-1.7	3.3
	구성비	11.3	2.8	5.2	3.9	2.6	9.7	2.6	4.8
계	보험료	166,153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80,624	169,569	685,422
	증가율	13.6	21.0	16.7	19.4	17.8	8.7	5.5	12.4

주: 1)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6.3	62.6	59.1	68.1	52.7	56.1
	사업비율	45.3	52.7	48.4	48.8	43.8	55.9
	합산비율	111.6	115.3	107.5	117.0	96.5	112.0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3.5	60.2	64.3	49.7	56.1	77.8
	사업비율	31.3	42.1	26.8	24.9	42.3	39.2
	합산비율	94.7	102.3	91.1	74.6	98.4	117.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65.0	67.5	61.0	68.6	48.1	72.3
	사업비율	14.6	14.4	10.0	14.1	14.0	48.2
	합산비율	79.6	81.9	70.9	82.7	62.0	120.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0.9	69.6	61.1	79.8	72.1	69.3
	사업비율	17.2	23.6	19.5	17.6	20.6	24.3
	합산비율	88.2	93.2	80.7	97.4	92.8	93.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3.8	55.5	53.6	55.7	54.5	67.6
	사업비율	46.0	50.1	40.6	35.8	38.1	41.1
	합산비율	99.8	105.6	94.3	91.5	92.6	108.7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112.1	131.0	65.5	57.3	47.4	65.6
	사업비율	29.4	29.4	35.3	28.7	60.1	1.9
	합산비율	141.5	160.4	100.8	85.9	107.5	67.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5.4	80.6	78.2	82.1	91.9	83.7
	사업비율	20.8	22.0	20.8	21.9	21.6	21.4
	합산비율	106.2	102.5	99.0	103.9	113.5	105.2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3.2	84.6	84.3	84.5	82.9	83.2
	사업비율	16.4	16.7	16.6	17.3	18.2	19.9
	합산비율	99.6	101.2	100.9	101.8	101.1	103.0
전체	경과손해율	82.7	82.8	80.4	82.4	82.3	81.6
	사업비율	18.1	18.9	18.2	18.7	20.0	21.1
	합산비율	100.8	101.7	98.6	101.1	102.3	102.7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27호 (4. 1)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후 유럽 금융시장 동향 (최원) ·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후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은행들의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탈리아 금융시스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 (Bloomberg, FT, 연합뉴스 등)
제227호 (4. 1)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신용지도의 변화 (이경아)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우량등급(AAA) 국채 발행 물량은 상당 규모 감소한 반면 신용시장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투자적격등급(BBB) 국채 발행 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세계 신용상황 변화로 우량등급 채권발행 감소가 큰 유로존 지역에서 금융기관 간 여신거래 시 담보물(collateral)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FT 등)
제228호 (4. 8)	유로존 실업률 12%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정환) · 유로존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2011년 4월(각각 9.9%, 1,550,000명)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 2013년 2월 현재 유로존 출범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인 12.0%를 기록함. (Eurostat, Markit Economics)
제228호 (4. 8)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 악화 (이소양) · 2013년 3월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 발표 결과,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 손해보험시장 상위 3사와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신라망 등)
제229호 (4. 15)	미국 양적완화 종료 논란과 시사점 (김세중) · 4월 10일 미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하였으며, 의사록 내용 중 3월 회의에서 2013년 말 양적완화를 종료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Bloomberg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29호 (4. 15)	엔화 약세가 국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채원영) 일본은행이 발표한 금융 완화 정책으로 엔화 가치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출 둔화는 가계소득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BOJ, 한국은행 등)
제230호 (4. 22)	중국, 1/4분기 GDP 성장률 둔화 (최원)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연초 예상치인 8%보다 0.3%p 낮은 7.7%를 기록함. - 중국 1/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2013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 (Wall street journal, 한국경제 등)
제230호 (4. 22)	BOJ 양적완화 이후 아시아 채권발행 물량 증가 (이경아) -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로 일본 투자자금의 해외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의 신규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일본계 투자자금이 투자다변화를 목적으로 우량등급의 아시아 채권으로 대거 유입될 뿐만 아니라 고수의 추구 목적의 해외투자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임. (FT 등)
제231호 (4. 29)	유럽 보험사기 규모, 지급보험금의 10% 수준 (이정환) - 유럽보험협회(Insurance Europe)는 2011년 유럽의 보험사기 규모가 평균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 영국의 잠재적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19억 파운드 수준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북부 유럽의 보험사기 규모는 증가 추세임. (Insurance Europe)
제231호 (4. 29)	최근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내외의 평가 (이소양) 4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 『Fiscal Monitor Report』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으로 인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급증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함. (FT, WSJ 등)
제232호 (5. 6)	미국 1/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김세중) 4월 26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1/4분기 GDP가 2.5%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시장 예상치인 3.0%를 하회하는 것임. 유럽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키프로스에 이어 슬로베니아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경제마저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가 대두됨. (Wall Street Journal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32호 (5. 6)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 확대 계획과 시사점 (채원영) · 최근 일본 4대 보험회사들이 해외채권 매수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엔저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유로존 채권투자가 확대될 경우 유로존 우려 재부각 및 환율변동성 확대 시 자산운용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WSJ, 국제금융센터 등)
제233호 (5. 13)	유럽연합 은행동맹 가능성과 시사점 (최원) · 독일은 유럽연합(EU) 은행동맹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유럽연합 은행동맹 출범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은행동맹의 출범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실무협상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Financial Times, 한국경제 등)
제233호 (5. 13)	정크본드 수익률 하락 및 발행물량 증가 (이경아) ·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증가된 글로벌 유동성이 투기등급 회사채(junk bond) 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발행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각에서는 최근 정크본드 발행물량 증가가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양호한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크본드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음. (FT 등)
제234호 (5. 20)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와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최원) ·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짐. · 보험산업의 경우 저금리 추세가 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보험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Financial Times, 한국경제 등)
제234호 (5. 20)	중국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 (김세중) · 중국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경제가 2/4분기에도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중국 경기둔화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35호 (5. 27)	일본 정부, 경기 회복국면 판단 (이정환) · 일본 경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2013년 1/4분기 일본경제는 설비투자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2012년 3/4분기까지 지속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남. (일본 내각부, 블룸버그 등)
제235호 (5. 27)	리보(Libor) 산정방식 이원화 추진 (이경아) · 기준금리 조작 파문 이후 개선이 추진되어 왔던 리보에 대해 기존 방식과 실거래 지수 방식을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이원화 방식은 기존 논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리보는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기준금리로의 대표성을 이유로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FT 등)
제236호 (6. 3)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과 시사점 (채원영) ·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이로 인한 재정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 (WSJ, FT 등)
제236호 (6. 3)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자동차보험시장 진출 현황 (이소양) · 2013년 4월 글로벌 금융회사인 AXA 그룹은 중국 자동차보험전업보험회사인 TianPing Auto Insurance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하선망, 신량망 등)
제237호 (6. 10)	유로존 보험회사 수익성,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저금리 지속 (이정환) · ECB는 2013년 유로존 보험회사들이 경영성과에서 큰 변화 없이 2012년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ECB(2013. 5), Financial Stability Review)
제237호 (6. 10)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1/4분기 경영수지 개선 (이소양) · 2013년 1/4분기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경영수지가 개선. (하선망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38호 (6. 17)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 논란과 시사점 (김세중) · 미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신흥국 투자자금이 대규모 이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연준의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자금이동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저금리 환경의 개선으로 보험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등)
제238호 (6. 17)	출구전략 시행의 신흥국에 대한 영향 분석 (채원영) · 미 연준의 출구전략 가능성 시사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금유출이 나타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013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제기되어 출구전략 시행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WSJ, FT, World Bank 등)
제239호 (6. 24)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사점 (최원) · 미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회사에 미칠 수 있는 금융 불안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WSJ, 서울경제 등)
제239호 (6. 24)	미국의 출구전략과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국채투자 (채원영) · 2013년 6월 19일(현지시간) 출구전략 가시화 언급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의 국채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신중해야 할 필요. (OECD, 금감원, FOMC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통권 66호)

발행일	2013년 8월
-----	----------

발행인	강 호
-----	-----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